

2012년 2월

교육학 석사(국어교육)학위논문

한강소설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양상 연구

-작품집 『채식주의자』와 『내 여자의 열매』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주 은 경

한강소설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양상 연구

-작품집 『채식주의자』와 『내 여자의 열매』를 중심으로-

A study on Aspects of Ecofeminism in Han
Gang's Novels

-Focusing on the 『Vegetarian』 and 『The fruit of my
Woman』 -

2012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주 은 경

한강소설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양상 연구

지도교수 김 형 중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주 은 경

주은경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혜 영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오 문 석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형 중 인

2011 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론

1. 연구목적
2.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II.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에코페미니즘의 이해
2. 에코페미니즘과 ‘채식’
3. 에코페미니즘의 한계 및 극복 대안

III. ‘채식’ : 지배 논리에 대한 부정

1. 육식의 거부와 채식 - 「채식주의자」
2. 육체의 결합을 통한 가치의 회복 - 「몽고반점」

IV. ‘식물-되기’ : 새로운 세계를 향한 자아의 변형

1. 새로운 원리를 향한 희망의 몸짓 - 「나무불꽃」
2. 탈육체화를 통한 주체의 회복 - 「내 여자의 열매」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한강소설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양상 연구

주은경

지도교수 : 김형중

국어교육전공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본 논문은 에코페미니즘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한강 소설을 통해 드러난 에코페미니즘 양상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에코페미니즘은 여성 억압과 자연 억압 사이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문이다. 한강의 소설집 『채식주의자』와 『내 여자의 열매』를 중심으로 그녀의 작품 세계를 이러한 에코페미니즘적 시각을 통해서 살펴본다. 한강의 작품 세계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몇몇 소논문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본격적인 에코페미니즘적 시각으로 접근한 선행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한강의 작품을 단순히 생태주의적 시각으로만 접근하기에는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적 스펙트럼들이 크고 광범위하다. 한강의 작품에 드러난 여성과 자연의 연결, 남성과 세계의 관계,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의미들이 매우 남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채식주의자』의 주인공인 영혜의 모습을 통해 육식을 거부하며 타자화되는것이 에코페미니즘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채식

을 통해 끊임없이 경계넘기를 시도하는 주인공인 영혜의 모습과 그런 영혜를 더욱 더 고립시키는 세계의 대립을 통해 에코페미니즘의 한계와 지향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나아가 자연의 원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영혜의 노력과 좌절된 식물에의 갈망이 어떤 새로운 원리를 만들어 내는지를 통해 에코페미니즘이 작품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내 여자의 열매』를 통해 여성의 주체성 획득이 에코페미니즘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임을 확인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역시 자연에의 원리를 회복시킬 주체임을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과 남성, 자연이 화합하여 하나가 되는 에코페미니즘의 궁극적 지향점에 대해 살펴본다.

A study on Aspects of Ecofeminism in Han Gang's Novels

-Focusing on the 『Vegetarian』 and 『The fruit of my Woman』 -

Ju Eun Kyung

Advisor : Prof. Kim Hyeong Jung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speculate eco-feminism theoretically and the aspects of eco-feminism shown in Han Gang's novels. Eco-feminism suggests that there are direct relations between oppression of women and the nature. It examines her creative world through the perspective of eco-feminism centering on Han Gang's collections of novels titled 『Vegetarians』 and 『The fruit of my Woman』 . There are a few papers which approached her creative world in ecological perspective, but there have been no previous studies which seriously dealt with it. Her novels are too wide in semantic spectrum to approach only in ecological perspective. As connection of women with nature, relations between men and the world, and various meanings derived from them are greatly

different in Han Gang's novels, it was judged that this study is needed. I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speculates what meaning Yeonghye, a heroin, refusing to eat meat and pursuing for othering in the 『Vegetarians』 has in eco-feminism. In addition, the study discusses the limitation and orientation of eco-feminism through opposition between the heroin who kept attempting to go beyond the boundary by eating vegetables and the world which isolated her. Furthermore, it investigates what principles are made through her efforts to recover the principles of the nature and her frustrated desire. It suggests that women's acquisition of identity will be a new alternative to eco-feminism through 『The fruit of my Woman』 and men are also subjects to recover the principles of the nature. Based on the results, it suggests that an ultimate goal of eco-feminism that women, men and the nature are united into one.

I 서론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에코페미니즘적 시각은 시와 소설 등 문학 영역 전반에 드리워져 왔는데, 그 중 소설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구자희¹⁾는 한국 현대 소설에 나타나는 에코페미니즘의 양상을 자연은 수동적 요소나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주체로 재개념화 해야 한다는 포스트모던 목가의 관점으로 천착함으로써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통해 최근의 한국 현대 소설에서 발견되는 생태문제와 여성문제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역설하였다. 한강의 「철길이 흐르는 강」, 이승우의 「못」, 조용헌의 「바다에 길을 묻다」 세 작품을 텍스트로 설정하여 ‘포스트모던 목가’가 에코페미니즘의 실천적 글쓰기의 한 방식이며 여성해방을 넘어 인간해방을 추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구자희는 또 다른 연구²⁾에서 기존의 도시소설 연구를 비판하며 근대성의 시각으로 작품을 응시하거나 도시에 대한 일방적인 회의로 일관하는 모더니즘 관점에서 벗어나 생태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하고 있다. 그녀는 이청준의 「잔인한 도시」, 이남희의 「수퍼마켓에서 길을 잃다」, 조세희의 「기계도시」를 텍스트로 삼아 도시소설과 생태비평의 접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구자희는 이 외에도 생태론과 에코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다양한 현대 소설을 분석하였다. 정연희³⁾는 한창훈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성의 지향과 젠더화된 수사들을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으며 한창훈 소설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이 여성주의의 입장에서 생태주의에 관심을 두는것이 아니라 젠더적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박미선⁴⁾은 공선옥의 소설속에서 에코페미니즘의 균형, 상생의 가치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그의 여성 서사를 통

-
- 1) 구자희, 「한국 현대 소설에 나타나는 에코페미니즘」, 『현대소설연구』 제29호, 한국현대소설학회2006.
 - 2) 구자희, 「한국 현대 도시 소설에 반영된 생태의식」, 『현대소설연구』 제36호, 한국현대소설학회2007.
 - 3) 정연희, 「한창훈 소설에 나타나는 에코페미니즘의 특성 연구」, 『국제어문』 제48호, 국제어문학회, 2010.
 - 4) 박미선, 「공선옥 소설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9.

해 분석하고 있다. 김미란⁵⁾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생태비평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난장이와 거인의 대립적 구도를 모성과 연관시켜 작품에 담긴 조세희의 모성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최지명⁶⁾은 그동안의 생태주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 에코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에코페미니즘의 타자의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많은 현대 소설들이 에코페미니즘적 시각에서 해석되고 있다.

한강⁷⁾의 작품과 관련된 연구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한귀은⁸⁾은 한강의 채식주의자의 등장인물간의 외상과 그들의 관계 파악을 통해 외상의 서사화 양상과 이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살펴보고 있다. 구자희⁹⁾는 앞서 살펴본 논문에서 인간과 자연간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에코페미니즘의 한 양상인 포스트모던 목가적 관점에서 한강의 「철길이 흐르는 강」을 분석하고 있다. 작품의 주인공인 ‘나’가 정신적 의식의 과잉이나 교조된 이념에 의한 각성을 통합이 아닌 탈신의 과정을 거쳐 자연에 동화됨으로써 상처를 극복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찬규·이은지¹⁰⁾는 에코페미니즘의 여성-자연을 접근시키는 미학적 장치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층적 의미가 매우 남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강의 작품 「채식주의자」를 육식의 거부, 가슴드러내기, 식물되기로 나누어 에코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신수정¹¹⁾은 채식과 채식주의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통해 한강 소설에 나타난 채식 모티브가 남성적 질서를 넘어선 저항의 움직임이며 여성적 에너지를 환기시키는 육체 언어의 발화임을 논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에코페미니즘과 연결시켜 살펴본 연구들은 이제껏 다루어지지 않은 한강의 작품 세계를 생태적 시각에서 살

5) 김미란, 「조세희 소설의 모성성 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9.

6) 최지명, 「타자들의 에코토피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연구」,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2010.

7) 1970년 광주에서 출생한 여성 작가 한강은 1994년 서울 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붉은 뗏』이 당선되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995년 발표한 첫 소설집 『여수의 사랑』을 비롯하여 『검은 사슴』(1998), 『내 여자의 열매』(2000), 『그대의 차가운 손』(2002), 『채식주의자』(2007), 『바람이 분다, 가라』(2010) 등을 출간하며 이상문학상 한국소설문학상등을 수상하였다.

8) 한귀은, 「외상의 (탈)역전이 서사-한강의<<채식주의자>>연작에 관하여」, 『배달말』, 2008.

9) 구자희, 「한국 현대 소설에 나타나는 에코페미니즘」, 『현대소설연구』 제29호, 한국현대소설학회2006.

10) 이찬규·이은지, 「한강의 작품 속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연구-『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46호,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11) 신수정, 「한강 소설에 나타나는 ‘채식’의 의미」, 『문학과 환경』, 2010.

펴보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고 의의가 있으나, 『채식주의자』에만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그간의 연구들은 ‘페미니즘’이라는 용어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자연과 여성을 동일시하는, 즉 ‘인간/자연’, ‘남성/여성’이라는 이분법에 기초하여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의 구조를 밝히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이분법에 기초하여 에코페미니즘을 설명하려는 이 같은 시각은 기존 페미니즘의 관점과 별반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나타난 생태학적 기호들이 갖는 의미나 그것을 반영하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를 한정된 의미 구조 속에 제한하거나 축소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에코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의 차이를 넘어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박고 있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 차별과 소외의 문제 등의 본질(남성성)을 파악하고, 대립이 아닌 화해와 배려 그리고 조화로운 관계 회복의 방법(여성성)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작품집 『채식주의자』와 『내 여자의 열매』에 나오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에코페미니즘의 양상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이 작품집 『채식주의자』와 『내 여자의 열매』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위계적 관계의 폭력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코페미니즘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문학은 우리 사회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대의 또 다른 자아이이다. 그리고 때로는 이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해주는 친절한 안내자이기도 한다. 문학 텍스트 안에서 다양한 모습들로 등장하고 있는 에코페미니즘 양상들은 이러한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에코페미니즘은 생태학(ecology)과 여성학이 결합한 것으로 여성과 자연을 동일하게 보는 학문이다. 개발로 인한 문제점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던 1970년대 형성된 이론인 에코페미니즘은 산업화, 근대화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라는 세계 공통의 핵심 쟁점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으로 주목받고 있

다. 문학은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에코페미니즘과 결합하여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문학을 재해석하려는 시도는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에코페미니즘이 여전히 우리 시대의 주류를 형성하는 이론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오늘날 근대화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과 파괴는 한 지역이나 국가의 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근대화는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전통과 관습이 지니고 있던 주술성을 냉철한 이성으로 대체시켰다. 또한 진보와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과학적 합리주의를 사회 전 영역에 확장시킴으로써 인간의 안위를 위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근대화의 물결이 인류에게 안락한 현실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다. 과학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그 결과물들은 편리하고 안락한 문화를 만들어주었지만, 동시에 자연 생태계의 파괴와 인간성의 부재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하였다. 무분별한 자연의 개발과 파괴는 생존의 기본 조건을 이루는 전 지구적 환경 자체에 심한 훼손을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오늘에 이르러 심각한 자연 이상 현상들을 발생시킴으로써 이제는 우리의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 인간 중심적 사고에 기초한 ‘지배와 종속의 논리’가 숨어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 지배의 논리는 지금 우리의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기도 하다. 아도르노는 『계몽의 변증법』에서 「오디세우스」¹²⁾를 통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초기 단계의 역사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오디세우스로 대표되는 남성성은 근대역사의 발전을 이루게 하는 토대이며 자연성이나 여성성은 억압해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근대는 이성과 남성이 자연과 여성을 정복해 가는 지배의 역사인 것이다.¹³⁾ 근대 문명은 자연을 지배와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환경오염, 폭력, 질병 등의 다층적인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그리고 우리 사회 역시, 인류가 자연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지배와 착취의 구조와 그로 인한 인간 사이의

12) 고대 그리스의 오디세우스는 이타카섬으로의 귀향길목에 있는 치명적인 요정 사이렌과 조우를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뱃사람을 유혹하는 사이렌의 노래에 저항할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를 돛대에 꿰뚫 묶은 채 사력을 다해 강한 의지로 유혹을 물리친다.

13) M. 호르크 하이머/Th.W아도르노 지음, 김유동·주경식·이상훈 옮김, 『계몽의 변증법』, 문예출판사, 1995, pp77~122.

불평등과 폭력적인 문제들을 야기해 왔다. 에코페미니즘은 이러한 현상 이면에서 작동하는 ‘지배 논리’에 주목하면서, 인간 중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강의 소설을 관통하는 주요 모티프인 ‘식물성의 상상력’(‘식물’+‘여성’, 『내 여자의 열매』)과 ‘채식’ 모티프(‘식물’+‘음식’, 『채식주의자』)는 현대사회가 강요하는 억압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강 소설의 대표적인 에코페미니즘 양상인 ‘식물성의 상상력’과 ‘채식’ 모티프가 남성에게 의해 구성된 기존의 사회질서를 뛰어넘고자 하는 저항적 몸짓이라는 것과 남성적 질서에 대한 저항에서 나아가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실천적 원리를 구현하는 문학적 언어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고, 이와 관련하여 ‘채식’과 관련된 이론 및 에코페미니즘이 지닌 한계점을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작품 속 등장인물의 행위가 어떠한 내재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작가가 의도하고 있는 에코페미니즘적 인식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설을 통해 자아-타자의 경계를 무화시켜 상처가 치유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에코페미니즘적 전망을 확보하고자 한다.

II.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이해

페미니즘은 지난 수세기동안 사회, 정치, 인종, 계급 등의 다양한 문제와 결합하며 이론적 변형과 실천적 운동을 이끌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변형의 한 갈래로서 등장한 에코페미니즘은 생태 혹은 환경을 의미하는 에코(eco)와 페미니즘(feminism)을 결합시킨 복합개념이다. 이러한 결합은 여성/자연 그리고 남성/문화 간 동치성(同置性)에 대한 직시 그리고 여성의 피지배성과 자연의 피지배성 사이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직시로부터 시작하였다.¹⁴⁾ 에코페미니즘¹⁵⁾이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프랑수아즈 도본느(Francoise d'Eaubonne)의 저서 『여성해방인가 아니면 죽음인가』(1974)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다. 그녀는 자연파괴와 여성억압적 남성중심 사회를 연결지어, 우리의 삶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두 가지는 인구과잉과 지구자원의 파괴로 이는 남성중심적 체제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도본느는 이미 5천 년 전에 가부장제적 권력이 시작되며 남성들이 지배권력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현대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이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성적 권력을 여성이 파괴하는 것으로 생태위기 해결에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만이 유일하게 지구상에서의 인류생존을 보장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도본느가 생각한 생태 여성론은 새로운 인간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여성적인 사회는 여성의 손에 권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권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¹⁶⁾ 여성성이란 남성성에 대항하는 개념이 아니라 생태학적 혁명을 수행할 새로운 인간의 원리를 의미한다.

14) 문순홍, 『에코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여성과 사회, 1995, p.316.

15)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용어의 기원에 대해 이론가들은 일반적으로 1974년에 프랑수아즈 도본느(Francoise D'Eaubonne)가 그녀의 책 *Le Feminisme ou la Mort*에서 처음 고안해 낸 개념으로 본다. 도본느의 글은 1994년에 캐롤린 머천트(Carolyn Merchant)가 편집한 *Key Concepts in Critical Theory: Ecology* (New Jersey: Humanities Press, 1994, pp. 174-97)에서 루쓰 호텔(Ruth Hottel)에 의해 "'The Time for Ecofeminism'"으로 처음 번역되었다.

16) 문순홍, 『생태학의 담론』, 생명총서, 1999, p.368.

생태학과 여성을 연관한 논의는 점점 발전하여 미국에서는 문화 여성주의 생태여성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수잔 그리핀(Susan Griffin)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리핀은 『여성과 자연』(1978)을 통해 여성과 자연의 연관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제1권에서는 영혼이 물질보다 우월하다는 잘못된 주장을 한 플라톤의 이원론적 위계 질서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서구 사회의 견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역설했다.¹⁷⁾ 제 2권에서는 자연(여성)보다 문화(남성)에 특권을 부여하는 서구 사상의 “결정”을 불행스러운 것으로 간주하고 플라톤 철학이 가져온 온갖 종류의 “분리 형태들(정신/육체, 지성/감성, 도시/황야, 인식아/기지의 사실)을 논의하였다. 제3권과 4권에서는 자연에는 문화에 대한 효용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가치가 있으며, 여성에게는 남성에 대한 효용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여성들이 자신이나 자연이 착취당하게 방치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¹⁸⁾

호주의 대표적인 에코페미니스트인 발 플럼우드드는 『페미니즘과 자연의 지배』(1993)라는 저서를 통해 에코페미니즘의 이론을 강화하고 있다. 그녀는 이성과 자연이라는 대립적 개념의 이해를 통해 생태론과 페미니즘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플럼우드드는 가부장제의 결과로서 과학 기술이 발전하였으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의 원인이 남성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여성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가장 이상적인 미래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이라고 주장한다. 기존의 페미니스트와 달리 그는 페미니즘을 여성문제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자연의 억압과 그 원인을 이해하고, 환경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페미니즘을 비판적 에코페미니즘이라 명명하였다.

이를 계승하여 통합적 변형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카렌 J. 워렌은 생태윤리학에 담긴 남녀차별적 요소들을 비판하며 에코페미니스트 윤리학만이 왜곡된 자연주의를 종식시킬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워렌은 인간과 비인간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인

17) Griffin, *Woman and Nature : The Roaring Inside Her*, pp83~90. - 로즈마리 퍼트넘 통, 『페미니즘 사상』, 이소영 옮김, 한신문화사, 2000, p492 재인용.

18) 위의 책, pp493~495.

간들 사이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자연에 대한 지배적 태도와 행동 양식을 모두 거부한다. 또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 권리나 의무를 강조하는 대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역설하며 남성-여성 혹은 자연-문화 같은 이분법적 구분과 가부장적 개념들이 남녀차별주의와 잘못된 자연주의의 근본 원인이라고 밝히며 기존의 이원론에 의해 과생된 일체의 왜곡된 선택들을 거부한다. 이원론적 사유에서 비롯된 지배 원리 중 일부 개념의 틀은 억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억압적 개념의 틀이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정당화한다. 그것이 가부장적 모습으로 형상화 될 경우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종속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자연과 여성의 이미지는 동일시되며 이것은 본질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기보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것이라고 보고, 자연이나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며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종속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가부장제이기 때문이다. 워렌(Karen J. Warren)에 의하면, 서구 세계의 기본적 신념들, 가치들, 태도들 및 서구 세계 자체와 서구 세계 주민들에 대한 가설들을 형성해 온 것은 억압적인 가부장제의 개념들이며, 그 틀의 목적은 일반적으로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관계를 설명하고 합법화하며 또 그 관계들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다.¹⁹⁾ 그녀는 남성중심주의를 무너뜨리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일이며 페미니즘이 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해방과 자연해방은 각각 다른 이론과 뿌리를 가지고 출발하였지만 자연스럽게 결합하게 된다. 에코페미니즘에서 여성은 곧 자연이고, 자연은 곧 여성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여성을 억압해온 것이 먼저였는지, 자연에 대한 억압이 먼저였는지를 따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것은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무의미한 논쟁이 아닐 수 없다. 이 때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이 결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마리아 미스와 반다나 시바의 『에코 페미니즘』이 탄생하게 되었다.

마리아와 반다나는 ‘땅’을 존재의 핵심으로 보고 사회의 영혼으로 규정한다. 땅은 생계유지의 원천이며 문화적·영적 삶의 재생산을 위한 자궁이다. 그들은 가부장적

19) 로즈마리 퍼트남 통, 『페미니즘 사상』, 이소영 옮김, 한신문화사, 2000, p.469.

자본주의 사회의 남성지배체제를 비판한다. 가부장적 개념은 가치를 이원화하는 세계관이며 남성/여성, 남성/자연, 도시/시골 등으로 타자를 분리시키고 차등화시키는 도구주의적 세계관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조 속에서 여성과 자연은 철저하게 타자로 규정된다. 또한 이러한 인간/자연, 남성/여성 사이에는 식민관계가 존재한다. 세계는 기본적으로 중심부의 주변부에 대한 착취관계로 이루어지며 성차별, 자연 파괴, 인종차별 등의 문제는 유럽의 식민지 확장과 근대과학의 발생에 따른 것이며 역사적으로 보편화된 현상이 아니다. 인간이 자연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방식과 남성이 여성을 대하는 방식이 유사하며 이러한 유용성의 측면에서 타자로 이용당한 역사는 근대민족 국가의 출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근대민족 국가를 아버지의 땅으로 본다면 파괴 이전의 자연은 어머니의 땅에 대비할 수 있다. 이것은 근대 민족 국가가 가부장적 입장에서 여성을 통제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마리아와 반다나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보살핌의 원리이다. 그들은 자연과 여성 등 타자화된 가치들이 서로 협력하고 보살핌으로서 세계가 유지된다고 역설하며 이에 기반한 새로운 인류학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영적(spiritual)원리이다. 모든 사물과 모든 물질세계는 하나로 연관되어 있으며 ‘영’은 여성적인 개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성적 원리는 모성, 보육, 직관 등을 포함한 다양성, 생명력, 순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적 원리는 세계를 협력적·상보적 관계로 유지, 발전시킨다.

셋째, 마리아와 반다나는 ‘지속 가능한 생존(sustainable substance)’이라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한다. 물론 이 발전모델은 앞에서 역설한 여성적 원리와 ‘영성’의 개념에 근거하여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말하는 ‘영성’이라는 개념은 우주와 세계의 모든 부분들이 다양하고 역동적이며 순환적인 관계 속에 얽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즉 전일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을 말한다.²⁰⁾

마리아와 반다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타자화된 여성과 자연의

20) 문순홍, 「생태여성론의 이론적 분화과정과 한국사회에의 적용」, 한국여성연구회 편, 『여성과 사회』, 창작과 비평사, 1996년 제 7호, p.37.

상호작용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한다.²¹⁾ 이러한 마리아와 반다나의 견해로 보아 ‘가부장제’나 ‘여성’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배의 논리나 그것의 대안으로써 제기되는 윤리의 개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윤리에서는 이분화된 사고 구조를 반영하여 여성과 자연은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자 남성과 구별되는 여성의 특성에 주목하여 여성은 보살핌, 양육, 협동 등 남성과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낸시 초도로우는 딸들은 어머니와의 동일시로 보살핌, 양육에 좀더 긍정적이며 남성보다 분화되지 않고 관계중심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초도로우의 입장을 이어 캐롤 길리건은 여성의 어머니 노릇 때문에 여성은 남성과 다른 보살핌의 윤리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²²⁾ 캐롤 길리건 (Carol Gilligan)은 전통적 윤리에 따른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여성적 윤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돌봄²³⁾의 윤리라는 말은 길리건의 『다른 목소리로』²⁴⁾라는 책을 통해 처음 제시되었다. 도덕적 갈등과 선택 상황에서 남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남성은 정의 윤리가, 여성은 보살핌 윤리가 형성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보살핌 윤리를 여성 이해의 기반으로 삼는다.²⁵⁾ 남성과 달리 여성은 도덕의 기준이 인간관계의 핵심인 보살핌, 타인에 대한 배려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길리건은 콜버그의 연구에는 여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콜버그는 하인즈 딜레마²⁶⁾를 통해 연구 대상자들이 어떠한 도덕적 사고를 하는가를 분석하였다. 그는 학생들의 응답을 총 6단계의 도덕발달단계로 나누었는데, 모든 인간의 도덕 발달에 보편적 구조가 존재한다고 확신했다. 그는 도덕적 추론이 더 높은 단계로 발

21) 마리아 미스, 반다나 시바, 『에코페미니즘』, 창작과 비평사, 2002.

22) 심영희, 정진성, 윤정로 공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나남신서, 1999, pp58~59.

23) "care"는 한국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보살핌 혹은 돌봄 등의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된다. 본고에서는 돌봄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24) 캐롤 길리건, 『다른 목소리로』, 허란주 옮김, 동녘, 1997.

25) 이정은, 「현대 여성주의 철학에서 보살핌 윤리- 실천적 판단에서 특수 윤리와 보편 윤리의 전환 가능성」, 『한국여성철학』 제11권, 2009.

26) “하인즈는 먼 고장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아내는 병이 들었다. 도시에 있는 약국에서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는데 하인즈는 그 약을 살 돈이 없고 약사는 약을 그냥 주기를 거부한다. 아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인즈는 그 약을 훔칠 것인가”

달할수록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²⁷⁾ 길리건은 콜버그가 여성의 도덕적 발달이 남자에 비해 낮다고 규정한 점, 즉 성차별적 편견을 비판한다. 길리건은 콜버그의 남아와 여아의 비교 실험 연구를 통한 도덕적 구성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남아에게서 보여지는 정의롭고 이성적인 판단보다 여아에게서 보여지는 보살핌의 도덕이 인간의 성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길리건의 이러한 돌봄의 윤리라는 새로운 장은 페미니즘의 여러 갈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여성으로서의 윤리를 강조하는 길리건의 주장은 의의하는 바가 크지만, 가치를 이원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에코 페미니즘은 길리건의 여성 윤리를 수용하되, 이러한 이분법을 뛰어넘어 인간간의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딩스(Nel Noddings)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성향으로서의 돌봄’에 관심을 기울여 ‘돌봄의 윤리’를 정립하였다. 그는 돌봄의 윤리(an ethic of caring)를 주창하면서 돌봄(caring)은 ‘도덕’(moral)개념보다 ‘윤리’(ethic)라는 의미에 부합한다고 말한다.²⁸⁾ 나딩스에 의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자연적이고 접근 용이한 돌봄의 형태가 존재하며 이것이 ‘윤리’에 부합하는 돌봄이다. 돌봄은 누군가에게 부담을 갖는 정신적 상태로서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계없이 이끌리는 감정을 가지고 배려하는 것을 말한다. 나딩스가 말하는 여성성은 수용성, 관계성과 같은 고전적 의미에서의 여성성이 아니라 여성들이 가진 조건 중 남성들이 지닌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뜻한다. 그것은 모-자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자에 해당하는 성이 여성일 경우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돌봄에 대한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지만 남성일 경우 그러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나딩스는 관계를 통한 돌봄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자연적으로 돌봄을 획득하게 되는 관계를 자연적 돌봄(natural caring), 자연적 돌봄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대상들과 관계를 맺기 위한 사회적 활동을 윤리적 돌봄(ethical caring)으로 규정하고 사람들과 관계맺음의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27) 콜버그·레빈·휴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문용린 옮김, 대우학술총서, 2000.

28) N.Noddings(1984), "Caring", V.Held(ed)(1995), *Justice&Care: Essential Readings in Feminist Ethics*, p7 - 강혜경, 「여성주의 윤리 시각에서 본 여성의 모성」, 여성학논집 제 125집 2호, 2008, p 100재인용

에코페미니즘에서 자연과 여성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자연과 여성은 공통적으로 “돌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돌봄의 원리가 가부장제 질서속에서 억압 받아 온 자연과 여성을 해방시킬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며, 나아가 그로 인한 현대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원리로써 자리매김할 것이다.

2. 에코페미니즘과 ‘채식’

그렇다면 에코페미니즘과 ‘채식’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에코페미니즘에서 경계하는 남성지배와 폭력을 거부하는 수단인 채식주의-채식주의를 채택하는 것으로 여성들은 서로 교전 중에 잇는 세계와 남성 의 존성을 동시에 거부한다.²⁹⁾채식주의를 통해 폭력 없는 세상을 구현해내고자 하는 것이다. 음식 선택으로 남성이 만들어 놓은 가부장제 질서를 거부하면서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를 통해, 그리고 채식주의를 선택하는 행동을 통해 페미니즘 이론을 실천했다.³⁰⁾ 다시 말해 채식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그동안 가부장제 구조속에서 억압 받던 여성이 자아를 깨닫기 위한 주체적 선택의 시작인 것이다. 육식에 대한 혐오감이 가부장제에 반감을 갖는 여성들을 대변하여 채식이라는 실천적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여성은 채식을 통해 주체성을 회복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남성 지배문화의 객체라는 범주에서 해방되었다. 채식은 가부장제 사회속의 타자로 존재하던 여성과 동물의 해방을 가져오는 결과이다.

또한 동물억압과 관련한 채식에 대한 논의는 ‘육식’이라는 필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시작으로 한다. 최근 몇 년간 채식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면서 채식전문 식당, 동호회들이 활성화되고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품들이 생산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현대 사회는 육식 위주의 식습관이 만연해있다. 에코페미니즘에서는 인간/동물, 인간/자연, 식물/동물로 이분법화 되어 구분짓는 것을 경계해 왔다. 인간과 자연의 순환적 진리를 깨닫고 이를 실현하는 실천적 움직임이 바로 채식이다. 채식

29) 캐럴 J 아담스, 『프랑켄슈타인은 고기를 먹지 않았다』, 류현 옮김, 미토, 2003, p239.

30) 위의 책, p303.

은 생태윤리학이 요구하는 중요한 실천 강령 가운데 하나로서 채식과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여성과 자연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착취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으로부터 벗어나 인간 이외의 생명체, 생물(생태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을 가진 피조물 각각의 고유한 가치와 자기 목적을 강조하는 생태윤리학은, 특히 현대의 대량 사육 체계를 비판하며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통증, 공포를 주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³¹⁾

미국의 철학자 톰 레건은 『동물옹호론』(1985)를 통해 동물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인간에게는 고유한 가치가 있으며 이러한 가치는 문화나 사회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안에서 형성한 가치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삶을 살아간다. 다시 말해 삶의 주체(subject-of-life)가 되는 것이다. 레건은 동물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동물들도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최소한 그것들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될 직견적 의무가 있다. “식용 송아지의 운명을 보고 우리는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고통이나 박탈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지를 혼동한 것이다. 이것은 때때로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동물을 먹을 수 있고, 조작할 수 있고, 스포츠나 돈을 위해 임의대로 이용할 수 있는 우리의 자원으로 보는 관행 자체이다. 불우아동을 안락한 상태에서 고통없이 사육하여 일정한 때에 아무 고통없이 도살되어 찌고, 굽고, 튀기고, 끓여진다면 이 경우 아무리 고통보다 쾌락의 총량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에 모두들 동의할 것이다.”³²⁾ 라며 동물들을 외부의 각종 위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물 윤리학자인 피터 싱어(Peter Singer)는 동물은 인도적 처분의 대상을 넘어서 윤리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의 주저 『동물해방』에서 인간이 인간아닌 동물(nonhuman animals)에게 가하는 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 동물실험 및 식용동물사육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피터 싱어는 동물

31) 구승희, 「생태윤리학: 인간윤리학에서 자연윤리학으로」, 『에코필로소피』, 새길, 1995, pp59~102참조.

32) J.R. 데자르맹, 『환경윤리』, 김명석 옮김, 자작나무, 1999.

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인간과 동물은 비슷한 신경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인간과 비슷한 고통을 느낀다고 주장한다.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으며 인간과 인간아닌 동물은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할 원한다.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처럼 종차별 역시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야 하며 윤리적 관점에서 동물해방을 주장한다. 그리고 동물착취에 대한 해결책으로 채식을 제시한다. 채식은 일종의 불매운동이며 동물들의 고통을 줄이고, 환경에 기여하며 고기를 먹기위해 낭비되는 엄청난 양을 식량을 줄여 사회문제 (영양실조, 기아, 환경오염)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33)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육식의 종말』을 통해 고기를 먹는 식습관으로 인해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었으며 특히 소고기에 집중되는 음식 문화와 이로 인한 생태계파괴, 환경오염 등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연을 회복시키고 인간과 소의 관계를 소를 신성시했던 시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방법론으로서 채식을 시작할 것을 설파한다. 34)

이러한 논의는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법정 역시 이러한 제레미 리프킨의 주장을 토대로 육식 위주의 우리 식생활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태로운 먹거리로 이루어져 있는가 되돌아 볼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일찍이 농경사회 속에서 채식을 해왔으며 그렇게 익혀온 식생활이 더없이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먹어서 죽는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육식위주의 식습관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고 목숨을 위협당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페미니스트이자 채식주의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캐럴 J. 아담스(Carol J. Adams)는 책³⁵⁾에서 남성/여성의 이분법적 구분이 음식에서는 육식/채식으로 구분되며 남성=고기=능동성, 여성=채소=수동성이라는 유사구조를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 여성은 남성에게 반드시 고기를 먹여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겨났으며 고정된 성역할 속에서 여성은 언제나 약

33) P. Singer, 『동물해방』, 김성한 옮김, 인간사랑, 1999.

34) J. Rifkin, 『육식의 종말』, 신현승 옮김, 시공사, 2002.

35) 캐럴 J. 아담스, 『육식의 성정치』, 이현 옮김, 미토, 2006.

자이며 이러한 권력 구조가 그대로 투영되어 남성지배구조속에서 식사의 종류가 결정되어진다고 한다. 이때의 고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힘, 권력 등 남성중심적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다. 여성의 몸을 “고깃덩어리”에 비유하거나, 정육점에 걸려있는 여성의 몸을 표현한 포스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여성은 동물과 동일시되며 따라서 육식에 내재된 동물억압은 여성억압과 연관 지을 수 있다. 결국 육식에는 남성지배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다. 캐럴은 “페미니즘이 이론이라면 채식주의는 실천”이라며 채식주의의 실천을 강조한다. 그녀는 “가부장제 소비문화를 뒤흔들기 위해서는 가부장제의 고기 식사를 중단해야 하며, 채식주의 식사를 선택해 쌀을 먹는 것이 바로 여성을 믿는 것”이라며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하는 실천적 행보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상의 논의들에서 알 수 있듯이 채식은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가 내재된 개념이다. 육식으로 관습화된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남성지배 이전의 자연적이고 근원적인 상태로 되돌리려는 인식의 전환이자 실천적 행보이라 할 만하다. 채식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미래 우리 사회의 모습과 관련된 정치적 행위이며, 기존의 가치를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기도 하다. 채식이야 말로 현대 사회의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억압당하고 부정되어 온 동물, 여성, 자연의 지위와 가치를 회복시킬 미래지향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3. 에코페미니즘의 한계 및 극복 대안

가부장적 질서를 비판하고 그것을 붕괴시키는 일에 몰두했던 전통적 페미니즘을 넘어 에코페미니즘은 환경오염, 생태계의 파괴와 같은 환경문제와 인류를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뛰어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에코페미니즘 역시 몇몇의 문제점들로 인해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에코페미니즘 역시 전통적 페미니즘과 마찬가지로 세계를 지나치게 이분화하여 나누고 있다는 점이다. 에코페미니즘은 남성=도시, 문명, 이성/ 여성=자연, 감성이라는

분류를 적용하여 세계를 나누고 남성을 상위개념, 여성을 하위개념으로 인식한다. 남성과 여성을 이원화시키고 있는 페미니즘의 분류를 그대로 답습하여 이론의 전제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남성과 여성을 차별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부장제의 질서 속에서 여성이 받은 소외와 억압에 대한 해결로서 여성이나 여성성의 개념을 제시하는 것은 그동안 남성이 저지른 행위의 반복에 다를 바 없다. 남성이 중심이 되어 세계를 이끌었으니 이제는 여성과 여성적 원리가 중심이 되겠다는 에코페미니즘의 발상은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었듯이 여성적 원리에 의한 세계 역시 남성 입장에서 본다면 억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자연과 여성을 존재론적, 인식론적으로 동일시하는 이러한 인식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류학자인 세리 오트너는 만약 여성과 남성의 관계가 자연과 문화의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면 여성 해방은 거의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 여성이 여성에 고유한 문화와 경험 그리고 가치를 근거로 여성 해방을 부르짖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반동이라는 혐의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³⁶⁾ 여성=자연이라는 인식은 남성≠자연이라는 공식이 성립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남성에 의한 지배를 비난함과 동시에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점에서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페트리셔 밀스는 자연을 찬양하는 에코페미니즘이야말로 페미니즘을 탈정치화시킴으로써 여성 해방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페미니즘을 생태운동의 시녀로 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한다.³⁷⁾ 여성=자연이라는 원리가 아닌 인간=자연이라는 논리가 에코페미니즘의 대안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여성의 존재가 매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타당하다.

또한 에코페미니즘에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돌봄의 윤리는 여성의 생식적 능력과 관계가 깊다. 자식을 임신하고 출산,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얻게 되는 모성애와 보살핌, 돌봄의 개념들이 세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역시 설득력을 지니기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의 상징인 이러한 원리들이 여성을 남성중심적 사회속에서 고정된 역할에 가두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배려, 돌봄의 윤리가 여성들에게만 국한

36) 김옥동, 「에코페미니즘의 철학적 기초」,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1997, p42.

37) 김옥동, 「에코페미니즘의 철학적 기초」,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1997, p45.

된, 여성 고유영역이기 때문에 남성은 이러한 문제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남성에게 대한 여성의 상대적인 하위구조를 인정하게 되는 오류이다.

초도로우나 길리건이 논의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는 어머니되기의 재생산이나 여성의 배려적 윤리는 원래의 논지와는 정반대로 성별분업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논리에 선별적으로 적용되어 이용될 위험을 안고 있다.³⁸⁾ 성별분업에 기초한 이러한 대안은 오히려 가부장제 사회속에서 여성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모성, 돌봄과 같은 여성성의 잘못된 개념화로 인해 성별 권력관계를 재생산화 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오늘날 여성성이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개념은 가부장적 사회가 규정하고 부여한 것들이다. 무자비한 개발로 인한 문제점들을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성이라는 용어로 포장하여 여성에게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이것은 가부장제의 또다른 지배이다. 여성과 자연의 동치 역시 남성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여성과 자연을 하나로 묶는 분류 체계 자체가 남성적 원리에 의한 개념이며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에코페미니즘의 당면 과제일 것이다. 그러므로 성별분업의 고착화에서 벗어나 인류가 지닌 생태적, 본질적, 학습적 개념으로서의 돌봄과 보살핌을 강조해야 한다. 보살핌과 돌봄의 가치는 여성에게만 귀속된 것이 아니다. 여성성의 회복이 아닌 주체성의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에코페미니즘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마리아 미스와 반다나 시바의 영성의 원리는 현대사회의 원리에 역행하여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가부장제의 폭력과 생태계의 파괴를 극복하는 원리로써 실제적 해결책이 아닌 이러한 정신적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을 무력화시킬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목마른 자에게 우물을 팔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하는 대신 물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 이러한 신비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띄고 있는 영성의 원리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 관념적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반다나 시바가 제시한 영성의 원리는 서구 사회가 규정한 남성/여성의 이분법화된 개념이 아니다. 여성적인 샤크

38) 이수자, 『후기 근대의 페미니즘 담론』, 도서출판 여이연, 2004, p122~123.

티와 남성적인 푸루샤가 자연 프라크리티를 생산해내는 창조적 에너지의 역동적 상호작용이 여성적 원리이다. 그녀는 자신이 말하는 여성적 원리란 서구적 의미가 아닌 인도 사회의 전통 속에서 오랫동안 작동해온 우주의 원리이자 삶의 철학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의 실천으로서 제 3세계의 자급적 노동을 제시한다. 쉬바에 의하면 자신이 주장하는 영성의 원리는 여성의 원리임과 동시에 남성의 원리이기도 하다. 쉬바가 제시하는 인도의 자급적 비폭력 문화는 가부장제와 지나치게 동떨어진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다. 에코페미니즘에서 문제로 제시하는 가부장제는 자본주의적 요소가 개입된 근대성의 산물인데 이에 대한 해결로서 자급적 노동을 제안한다는 것은 근대사회로부터의 역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계가 이미 근대화되어버렸는데 그 세계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지 않는 이상 지나간 원리로의 회귀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자연속에서 자급적으로 식량을 생산하고 자연에게 비폭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관념적이며 현실적이지 못하다. 우리에게는 자급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농사를 지을 땅이 없다. 대신 공장들과 아파트들로 가득찬 도시가 있을 뿐이다.

에코페미니즘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호주의 에코페미니스트인 발 플럼우드로부터 찾을 수 있다. 모든 억압의 근원이 되는 자연 지배의 전통을 깨뜨리기 위하여 플럼우드가 제시하는 것은 자연의 의지력을 인정하는 의지적 관점(intentional stance)이다. 이것은 자연을 의지력도 자주성도 없는 기계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데카르트식 자연관과 대조적인 관점이다. 이 관점은 인간이 자연을 초월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자연과 차이점과 함께 공통점을 가지며 지구에 공존하고 있고, 자연의 다양한 존재들도 의지와 목적과 자주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는 관점이다.³⁹⁾ 한강의 소설은 이러한 플럼우드의 논의를 발전시켜 인간과 자연이 자아의 본질을 깨닫고 스스로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자연과괴, 여성억압 등과 관련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9) 이귀우, 「생태담론과 에코페미니즘」, 새한영어영문학회, 2001.

Ⅲ. ‘채식’ : 지배 논리에 대한 부정

1. 육식의 거부와 채식 - ‘채식주의자’

한강의 작품집 『채식주의자』는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 불꽃」으로 구성된 연작소설집이다. 그 중 표제작인 「채식주의자」는 “개성 있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여성인 영혜가 고기를 거부하고 식물을 먹는 행위를 통해 어떻게 삶을 재구성하는지를 여과없이 드러낸다.

어두운 숲이었어. (……) 거적때기를 걷고 들어간 순간 봤어. 수백개의 커다랗고 시뻘건 고깃덩어리들이 기다란 대막대들에 매달려 있는 걸. 어떤 덩어리에선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피가 떨어져내리고 있었어. 끝없이 고깃덩어리들을 헤치고 나아갔지만 반대쪽 출구는 나타나지 않았어. 입고 있던 흰옷이 온통 피에 젖었어. (「채식주의자」 pp. 18~19)

다시 꿈을 꿔.

누군가가 사람을 죽여서, 다른 누군가가 그걸 감쪽같이 숨겨줬는데, 깨는 순간 잊었어. 죽인 사람이 난지, 아니면 살해된 쪽인지, 죽인 사람이 나라면, 내 손에 죽은 사람이 누군지, 혹 당신일까.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아니면, 당신이 날 죽였던가…… (「채식주의자」 p. 36)

「채식주의자」의 아내 영혜가 ‘채식’을 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는 ‘꿈’이다. 주지하다시피 ‘꿈’은 ‘트라우마’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꿈에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형상들은 마치 ‘죽은 자가 어떤 미발된 상징적 채무의 수금원으로서 귀환하는 것’⁴⁰⁾과 같은 억압된 무의식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에서도 ‘꿈’은 흔히 정신적 외상이나 억압된 ‘실재’를 드러내는 장치로 사용되는데, 위의 꿈 역시 누군가가 누군가를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장면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시뻘건 고

40) S, Žižek 『뻘뻘하게 보기』, 김소연·유재희 옮김, 시각과 언어, 1995, p56.

깃덩어리들”과 “마르지 않은 붉은 피”는 살생이 가져온 처참한 흔적을 가감 없이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영혜가 이러한 악몽에 시달리게 된 원인은 바로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이다.

…… 내 다리를 물어뜯은 개가 아버지의 오토바이에 묶이고 있어 (……)

아버지는 녀석을 나무에 매달아 불에 그슬리면서 두들겨 패지 않을 거라고 했어. 달리다 죽은 개가 더 부드럽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대.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리고, 아버지는 달리기 시작해. 개도 함께 달려. (……) 다섯 바퀴째 돌아 개는 입에 거품을 물고 있어. 줄에 걸린 목에서 피가 흘러. 목이 아파 킁킁대며, 개는 질질 끌리며 달려. 여섯 바퀴째 개는 입으로 검붉은 피를 토해. 목에서도, 입에서도 피가 흘러. 거품 섞인 피, 번쩍이는 두 눈을 나는 곳곳이 서서 지켜봐. 일곱 바퀴째 나타날 녀석을 기다리고 있을 때, 축 늘어진 녀석을 오토바이 뒤에 실은 아버지가 보여. 녀석의 덜렁거리는 네 다리, 눈꺼풀이 열린, 핏물이 고인 눈을 나는 보고 있어.

그날 저녁 우리집에선 잔치가 벌어졌어. 시장 골목의 알 만한 아저씨들이 다 모였어. 개에 물린 상처가 나오려면 먹어야 한다는 말에 나도 한입을 떠 넣었지. 아니, 사실은 밥을 말아 한 그릇을 다 먹었어. 들깨냄새가 다 덮지 못한 누린내가 코를 찔렀어. 국밥 위로 어른거리던 눈, 녀석이 달리며, 거품 섞인 피를 토하며 나를 보던 두 눈을 기억해. 아무렇지도 않더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 (「채식주의자」 pp. 52~53)

어릴 적 그녀는 ‘아버지’와 ‘아저씨들’에 의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개를 먹었는데, 이 기억으로 인해 악몽을 꾸게 된 것이다. 어린 시절 그녀의 경험을 통해 ‘육식 문화’에 감추어져 있는 폭력성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아버지의 개에 대한 폭력은 딸에게 트라우마가 되고, 그녀의 의지와 관계없이 남성주체에 의해 강요되어진 육식은 그녀를 결국 채식주의자로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육식은 단순히 우리 사회의 민간요법이라기보다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인류에게 전승되어진 생존의 방법이다. 자신에게 닥치는 위해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앞으로 계속될 미래의 위해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그녀는 이러한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한 그동안의 육식 습관에 대한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채식’을 선택한다. 영혜는 꿈을 꾸고 난

뒤 냉장고에 있는 고기를 모두 버리게 되는데 영혜의 남편은 이런 영혜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타박하며 그녀를 육식공동체의 타자⁴¹⁾로 규정한다. 타자에는 여성뿐 아니라 자연, 그리고 남성주체들이 ‘필요의 영역’에서 해방되는 과정에서 마음대로 착취, 종속시킬 수 있도록 개방되고 변형⁴²⁾되어진 존재들이 포함된다. 남편에 의해 타자화된 영혜와 마찬가지로 개는 아버지에 의해 타자화되어 폭력을 당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영혜가 채식을 하고자 하는 것은 수많은 육식 생명체들로 가득 차 이미 타자화된 몸의 주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자신의 몸 안에 쌓인 수많은 다른 존재들로 인해 육체의 주체성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다시 육체의 본질적 실체를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채식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그것은 또한 육식 공동체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살생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영혜가 ‘채식주의자’가 되겠노라 선언함으로써 더 이상 영혜는 육식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녀는 철저하게 타자화되어 이 사회에서 고립되고 동시에 비난받는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삶의 원칙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육식이 정상인 ‘육식문화’가 보편화된 사회속에서 ‘채식주의자’란 필연적으로 ‘타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영혜가 타자화되는 과정은 남편의 상사가 주관하는 저녁 모임 자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육식은 본능이에요. 채식이란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골고루, 못 먹는 것 없이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원만하다는 증거죠.”

“채식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건강 때문에…… 아니면 종교적인 거예요?”

41) 타자성은 어떤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자신의 경험과 시선으로 규정하고, 그 다른 존재는 상대방이 내린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스스로를 그 규정에 맞추어 가는 것이다. 이런 타자화 현상이 일어나는 관계에는 예외없이 권력이 개입되고, 권력이 있는 쪽이 주체, 없는 쪽이 타자가 된다. 이때는 주체의 체험이 권위를 가지며, 그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그리고 타자는 주체의 체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식체계를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를 소외시키게 된다. 한번 이런 틀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모든 다른 제도에서와 같이 거대한 복합체로서 굴러가게 되므로 타자화의 구조는 여간해서 바꾸기가 힘들어진다. - 조혜정, 『탈식민지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1)』, 또하나의 문화, 1992, p91~92.

42)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같은 책, p.18.

“아니요.” (……)

“다행이네요. 저는 아직 진짜 채식주의자와 함께 밥을 먹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징그럽게 생각할지도 모를 사람과 밥을 먹는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정신적인 이유로 채식주의 한다는 건, 어찌됐든 육식을 혐오한다는 거 아니요? 안 그래요?” (「채식주의자」 pp. 31~33)

채식은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상사부인의 말을 통해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정상적인 것-은 바로 육식을 하는 것이며 이 사회의 정상인은 육식주의자라는 것을 강조한다. 영혜는 단지 고기를 먹지 않았을 뿐인데 영혜의 그러한 행동은 모임에 참석한 “좌중의 기분까지 끔찍하게 만들”어 버린다. 피해자인 영혜를 순식간에 가해자로 만드는 이 잔인함은 가족 공동체 속에서도 예외 없이 드러난다. 가족 내에서 창출되고 유지되는 관계는 외부세계 특히 자본주의적 시장에서의 관계와는 다르다는 믿음이 보편적이다.⁴³⁾ 그렇기에 가족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영혜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우리 사회의 그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모습으로 그 형태를 드러낸다.

“먹어라. 애비 말 듣고 먹어.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가슴 뭉클한 부정(父情)이 느껴져,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마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다. 허공에서 조용히 떨고 있는 장인의 젓가락을 아내는 한손으로 밀어냈다.

“아버지,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순간, 장인의 억센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다. 아내가 뺨을 감싸쥐었다. (「채식주의자」 pp. 46~49)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아내의 입술에 장인은 탕수육을 짓이겼다. 억센 손가락으로 두 입술을 열었으나, 악물린 이빨을 어찌지 못했다. 마침내 다시 화가 머리끝까지 치

43) 배리 쏘온·매릴린 알롭 엮음,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권오주·김선영·노영주·이승미·이진숙 옮김, 도서출판 한울, 1991, p29.

민 장인이 한번 더 아내의 뺨을 때렸다. (「채식주의자」 p. 50)

언니의 집들이에 모인 영혜의 가족들은 그녀의 채식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완강하게 비난하고 부정한다. 그녀를 최초로 타자화시킨 남편에 의한 고발로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에게 육식을 강요한다. 육식을 거부하는 딸의 뺨을 때리는 아버지의 행동은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그녀에게 가해진 폭력을 통해 개연성을 갖는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의 손찌검은 유독 영혜를 향한 것이었다는 언니의 진술을 통해 그녀가 어린시절부터 가부장제의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학대받아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부장제(patriarchy)라는 개념은 주로 성에 기초하여 권력이 배분되기에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지위에 놓이는 사회제도나 남성집단이 여성집단을 지배하는 권력구조라는 의미를 지닌다.⁴⁴⁾ 즉 가부장제는 아버지의 지배를 뜻한다. 성을 이분화시켜 구별하려는 문화는 한국 사회에서는 유교적 가부장주의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고려시대까지 비교적 대등한 선상에 놓여있던, 오히려 여성의 모성적 위치를 인정하던 것과는 달리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철저한 성의 구분은 여성의 정치적 위치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위치를 심각하게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가부장제는 절대적 세습 권한으로 집안의 남자들에게 학습되어진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이어지는 지배권위를 보며 집안의 남자는 언젠가 그 권력이 자신에게 오게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며,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 할아버지의 행동을 모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부장적 권위는 가정 내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회의 지배 규범으로 확대되어 존재한다. 문화의 형성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내재되고 각인된 사고방식이 보편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유교적 가치관에 따른 성의 구분 및 가부장제의 권력은 서구화, 도시화의 진행 속에서 점차 약화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대가 흐르는 동안 그것은 사라지고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욱 견고하게 내재화되어, 오히려 강화되고 재활성화 되고 있다. 이러한 가부장적 지배 질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44) 사라 밀즈 외, 「페미니즘 용어 사전」, 『현대사상』, 1991, p144.

오랫동안 가부장제 권위를 누려온 아버지는 딸의 채식을 용납할 수 없다. 마리아 미즈에 따르면 가부장제는 여성의 착취와 억압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차원을 지시하는 용어로서, 여성에게 영향을 주는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관계의 총칭으로 제시된다. 미즈는 이 가부장제가 오늘날 보편적인 체제가 된 이유에 대해서 약탈, 전쟁, 정복과 같은 역사적 현상을 통해서 설명한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들이야말로 가부장제를 팽창시킨 것들이기 때문이다. 구석기 시대부터 수렵을 통한 ‘고기’의 확보는 남성에게 권력을 부여해주었고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부여받은 권력을 가진 남성에게 끊임없이 고기를 제공하는 것이 여성의 일이 되었다. 영혜 역시 가정의 권력자인 남편의 요구에 순응하여 맛있는 고기밥상을 차리던 가부장제적 사회에서 요구되어진 여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그러나 채식을 선언한 후 영혜는 남편의 상에 고기를 차리지 않고, 고기냄새가 나는 남편과의 성행위도 거부한다. 이것은 더 이상은 남성에 의한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저항의 몸짓이다. 영혜를 대하는 남편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남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당하자 지금까지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를 “나는 모르고 있었다. 저 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당신 미쳤구나!”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한다.

마리아 미즈, 캐롤린 머천트 등의 에코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이 여성의 몸을 통제하면서부터 여성에 대한 학대가 더욱 심각해졌으며, 여성은 근대 사회의 주체가 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역설한다. 여성이 근대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타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땀구멍 하나하나에서” 고기냄새가 나는 남편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과 어린 시절 오토바이에 산 채로 개를 매단 채 질주하던 아버지에게서 나던 냄새는 타자화된 여성과 다른 동물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냄새이다. 플럼우드 는 서구 철학의 이항대립에서 언제나 우세한 쪽은 이성과 연관되었고, 열등한 쪽은 자연으로 나타났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이원론을 “식민지화의 논리”라고 명명한다. 중심에 있는 이성적인 주체는 대조와 배제에 의하여 타자를 주변화하고 지배하는 지배자(master)가 된다. 그녀는 플라톤 철학에서 이와 같은 이성과 지배의 결합을 발견한다. 여기서 “주인 주체”(master identity)는 여성뿐 아

니라 노예[인종, 계급, 성차별의 복합체], 동물, 자연을 차별하고 배제함으로써 구성된다.⁴⁵⁾

영혜가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하는 것은 가부장제하의 아버지의 지배에 대한 거부이자 남성이 권력을 행사하는 사회에 대한 거부를 상징한다. 남성의 폭력에 저항하는 주체적 의지의 발현인 것이다. 이것은 비단 남성에게 의한 폭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육식 공동체 속에 포함되어 자의든 타의든 육식에 길들여진 가족 구성원들은 하나가 되어 영혜를 철저히 타자화시킨다. 같은 성의 어머니조차도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흑염소 즙을 먹이려하고 그녀의 언니 역시 그녀가 어린시절 좋아하던 고기요리를 강요한다.

아내는 몸을 움크려 현관 쪽으로 달아나는가 싶더니, 뒤돌아서서 교자상에 놓여 있던 과도를 집어들었다. (……) 이를 악문 채,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하나씩 응시하다가, 아내는 칼을 치켜들었다. (……) 아내의 손목에서 분수처럼 피가 솟구쳤다. (「채식주의자」 p. 51)

이렇게 타자로 취급된 영혜는 자신의 채식이라는 행위에 대한 권리가 거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결국 육식을 거부하기 위해 스스로 손목을 긋게 된다. 이렇게 가족과 사회라는 이름의 공동체에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영혜의 행위는 가부장제적 문화에 대한 거부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생태계 파괴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가부장제적 문화가 생태 파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가부장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물질적 기반은 자본주의와 연결된다. 남성들은 이 자본주의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여성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자연환경을 훼손해왔다.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현대 사회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여성과 자연의 학대이다. 이에 대응하는 영혜의 채식은 그동안 종속되어 있던 가부장제와 근대화로부터의 독립선언이라 할 수 있다.

45) 이귀우, 「생태담론과 에코페미니즘」, 새한영어영문학회, 2001.

2. 육체의 결합을 통한 가치의 회복 - ‘몽고반점’

채식이 육식공동체의 경계를 허물고, 가부장제의 근간을 교란하는 정치적 실천의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 이제는 그 경계를 허물지 못한 여성이 어떤 모습으로 세계에 드러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해를 한 후 병원에 누워있는 영혜에게 “네 꼴을 보라, 지금 네가 고기를 안 먹으면, 세상 사람들이 널 죄다 잡아먹는 거다.”라는 어머니의 울부짖음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기에 대한 거부, 남성에 대한 거부의 움직임 속에서 결국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한 여성에게 우리 사회는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다.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아웃사이드로 규정하고 그녀를 사회 밖으로 내몬다. 더 이상 그녀는 한 사회, 한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것이다. 에코페미니즘이 지향하는 자연과의 화해, 사랑,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채식주의자』는 채식을 넘어 거식으로, 또한 나무가 되고자하는 영혜의 독백 같은 삶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새로운 원리의 질서를 희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아무도 날 도울 수 없어. 아무도 날 살릴 수 없어. 아무도 날 숨쉬게 할 수 없어.”라는 영혜의 울음은 영혜의 삶을 좌절이 아닌 희망으로 이끄는 메아리가 된다.

2부 「몽고반점」에서 영혜는 비디오 아티스트인 형부의 작품모델이 된다. 형부는 영혜에게 아직도 몽고반점이 남아있다는 아내의 말에 강한 성적 흥분을 느낀다. 한강의 소설 속에서 여성과 식물의 이미지는 동일시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이미지는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억압하기 이전의 자연을 의미한다.

여성과 자연의 동일화를 통해 한강은 소설속에 등장하는 여성에게서 식물성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혜의 몽고반점과 식물성을 연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과 자연의 동치는 한강의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도 곳곳에서 제시된다.

엄마는 배꽃 환한 그늘 아래 앉아서 아이를 향해 두 팔을 벌릴 거라고, 그 가슴팍에서 향긋하고 끈끈한 과즙냄새가 날 거라고 생각했다. (「해질녘에 개들은 어떤 기분

일까」 p. 138)

아이는 엄마의 향긋한 목덜미를 생각했고, 머리칼에서 풍겨나오던 라일락 냄새를 생각했고 (「해질녘에 개들은 어떤 기분일까」 p. 143)

여자는 강아지풀 같은 웃음을 터뜨렸다. (「아홉 개의 이야기」 p. 253)

대추알을 불룩하게 넣은 그녀의 호주머니에서 향긋한 냄새가 났다. (「아홉 개의 이야기」 p. 254)

이러한 식물성의 양상이 한강의 소설을 에코페미니즘과 관련짓는 매개가 된다.

형부가 몽고반점에 강한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은 남성 역시 남성과 여성이 이원화 되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하고 지배당하기 이전의 평화로운 세계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성 주체의 이와 같은 깨달음은 에코페미니즘이 지향해야 할 바를 여성이 자아의 본질을 깨닫고 주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형부가 영혜의 몸에 꽃을 그리는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약간 멍이 든 듯도 한, 연한 초록빛의, 분명한 몽고반점이었다. 그것이 태고의 것, 진화 전의 것, 혹은 광합성의 흔적 같은 것을 연상시킨다는 것을, 뜻밖에도 성적인 느낌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식물적인 무엇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몽고반점」 p. 101)

한번도 보지 못한 처제의 알몸을 상상해 처음 그리고, 작고 푸른 꽃잎 같은 점을 엉덩이 가운데 찍으며 그는 가벼운 전율과 함께 발기를 경험했었다. (「몽고반점」 p. 74)

먼저 그녀의 어깨까지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올리고, 목덜미에서부터 꽃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주와 빨강의 반쯤 열린 꽃봉오리들이 어깨와 등으로 흐드러지고, 가느다란 줄기들은 영구리를 따라 흘러내렸다. 오른쪽 엉덩이의 둔덕에 이르러 자줏빛 꽃은 만개해, 샛노란 암술을 도톰하게 내밀었다. 몽고반점이 있는 왼쪽 엉덩이는 여백으로 남겼다. 대신 그 푸르스름한 점 주변으로 그보다 흐린 연둣빛을 큰 붓으로 깔아, 연

한 꽃잎 그림자 같은 반점이 도드라지게 했다.

빛이 스칠 때마다 간지러운 듯 미세히 떨리는 그녀의 육체를 느끼며 그는 전율했다. 그것은 단순한 성욕이 아니라, 무언가 근원을 건드리는, 계속해서 수십만 볼트의 전류에 감전되는 듯한 감동이었다. (「몽고반점」 p. 103)

그녀의 피부는 흐릿한 연둣빛이었다. 방금 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그러니까 방금 시들기 시작한 잎사귀 같은 그녀의 몸이 그의 앞에 엎드려 있었다. 그녀의 엉덩이에는 몽고반점이 없었고, 대신 온몸에 그 연둣빛이 고르게 번져 있었다. (……) 그가 그녀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짓무른 잎사귀에서 흐르는 것 같은 초록빛 즙이 그녀의 음부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향긋하면서도 씩씩한 풀냄새가 점점 아릿해져 그는 숨을 쉬기 어려웠다. 절정의 직전에 가까스로 몸을 빼냈을 때, 그는 자신의 성기가 온통 푸르죽죽하게 물들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것인지 그의 것인지 모를 싱그러운 즙으로 그의 아랫도리와 허벅지까지 시퍼런 풀물이 들어 있었다. (「몽고반점」 pp. 116~117).

그는 영혜를 통해 단순한 성욕이 아닌 근원을 건드리는 무언가를 느낀다. 그것이 바로 식물성의 인식이다. 여성을 매개로 주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세계의 중심부에서 여성을 타자화시키는 지배 권력으로서의 인식이 아닌 여성과 동등한 위치, 자연과 분리되지 않은 위치에서 세계를 인식한 것이다. 사회가 만들어 낸 형부와 처제라는 도덕적 관계속의 결합이 아닌 인간과 인간의 결합, 나아가 자연과 인간의 결합을 의미한다. 즉 그것은 “여성의 관능, 여성의 성적 에너지, 여성의 가장 소중한 생명력과 같은 것”, 다시 말해 “여성으로 하여금 생명을 사랑하고 축복하게 해주는 에너지”⁴⁶⁾이다. 형부는 비디오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가진 예술가이다. 예술은 본질적으로 영성의 개념과 가깝기 때문에 영혜에게서 스며 나오는 자연에 가까운 힘을 형부는 감지한 것이다.

형부는 처제의 몽고반점을 통해 꽃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고 영혜 역시 자신의 몸에 꽃을 그리는 작업에 만족해하며 꽃을 그린 형부와의 결합을 강렬하게 원한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그려진 꽃이 “안 지워지면 좋겠”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고 싶

46)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같은 책, p.30.

었던 적이 없었어. 그 사람 몸에 뒤덮인 꽃이요…… 그게 날 못 견디게 했던 거야. 그것뿐이에요”라며 꽃에 대한 갈망과 꽃과의 결합을 원한다. 꽃과 나무로 대표되는 자연의 일부가 됨으로써 나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세계-여성을 억압하는 온갖 사회 제도와 구조-를 벗어나길 갈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혜가 원한 것은 자연으로의 회귀일 뿐 남성과 여성의 육체적 결합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있어서 형부와의 섹스와 자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게 될 비디오 작업은 어떠한 의미도 없다. 이는 꽃을 그리지 않은 상태의 형부는 거부하면서도 꽃을 그린 형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혜는 채식의 함으로써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일차적으로 저항하였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금기를 위반하는 행위이고 금기를 위반한 영혜는 그 대가로 철저히 타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타자가 된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또 다른 금기의 파괴를 시도한다. 형부와의 섹스는 그녀의 이차적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남성의 몸에 정복당한 무기력한 여성으로서가 아닌 자아를 벗어나 식물과 동화되기를 갈망하는 또 다른 식물로서의 행위인 것이다. 이리가라이는 『하나이지 않은 성』에서 여성의 성이 지금까지 가부장제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여성은 자신의 본래적 여자다움을 느낄 수 없게 되었고 단지 남성다움의 매개변수를 통해 이론화되어 왔다고 주장한다.⁴⁷⁾ 영혜의 욕망은 본래의 자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이며 남성에 의한 식민화의 거부이다.

영혜는 채식으로 인해 타자로 규정되어 사회가 만들어놓은 체제의 금 밖으로 물러나 있지만 형부의 경우는 다르다. 예술가라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영혜 주변의 다른 누구보다 먼저 그녀의 식물성과 그녀에게서 흘러나오는 자연의 힘을 깨닫지만 그는 여전히 가부장제 질서속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진 존재이다.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금 밖으로 걸어나가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영혜를 통해서 보았듯이 타자화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죽었으면 좋겠어,라는 말이 왜 주문처럼 머리 안쪽에서 실재없이 터져나오는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몽고반점』 p. 132)

47) 이수자, 『후기 근대의 페미니즘 담론』, 도서출판 여이연, 2004, p104.

그는 신음을 내며 그녀가 있는 쪽으로 달려갔다. 조명도, 촬영 따위도 그는 잊었다.
숫구치는 충동만이 그를 삼켰다. (「몽고반점」 p. 138)

J의 몸과 그녀의 몸이 그랬듯이 지금 두 사람의 몸은 겹쳐진 꽃들 같을까. 꽃과 짐
승과 인간의 뒤섞인 한몸 같을까. (「몽고반점」 p. 140)

그는 자신이 앞으로 하게 될 행동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을 자학한다. 이것은 처제와의 결합을 기존의 사회적 관념의 틀 속에서 고정된 채 사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꽃과의 결합을 원하는 처제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몸에 꽃을 그리고 처제를 찾아가 육체적인 결합을 하는 형부의 모습에서 여성과 자연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배려는 사라지고 동물적 본성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현대인들-현대 남성들-을 위한 제 3의 공간은 여성, 엄밀히 말해서 여성의 육체이다. 여성의 육체는 대다수 남성의 욕망이 투사되는 스크린이다.⁴⁸⁾영혜의 육체를 탐하는 형부의 모습은 남성에 의한 자연의 식민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여성의 몸을 지배하려는 것은 곧 자연을 정복하는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다. 마리아 미즈, 캐롤린 머천트 등의 에코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이 여성의 몸을 통제하면서부터 여성에 대한 학대가 더욱 심각해졌으며, 여성은 근대 사회의 주체가 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여성이 근대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둘의 결합은 겹쳐진 꽃의 모습이 아니라 꽃을 해하는 짐승의 모습이다. 이는 어린시절 영혜에게 개고기를 먹이던 아버지와 아저씨들, 자신에게 고기 공급이 끊기자 영혜를 미친사람 취급하던 남편의 모습과 동일하다. 형부는 영혜의 육체를 정복함으로써 영혜를 소유하고자 한다. 이러한 소유욕에는 영혜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자연성에 대한 깨달음이 전제하고 있긴 하지만 형부 역시 영혜를 타자화시키는 가부장들 중 하나일 뿐이다.

육체를 통한 세계와 관계맺기는 그 자체가 여성을 남성의 지배 아래 식민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부장제의 권력에 맞서서 여성적 원리를 회복하는 일은 결코 쉽

48) 마리아 미즈·반다나 시바, 같은 책, p.172.

지 않은 일이다. 영혜의 언니는 덩굴처럼 알몸으로 얽혀 있던 두 사람의 모습을 성적인 것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꽃과 잎사귀, 푸른 줄기들로 뒤덮인 그들의 몸은 마치 더 이상 사람이 아닌 듯 낮설었다. 그들의 몸짓은 흡사 사람에서 벗어나오려는 몸부림처럼 보였다.”고 진술한다. 이것이 바로 영혜가 원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는 언니의 말을 통해 주체성을 찾고자 하는 영혜의 노력이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영혜는 형부와의 섹스를 통해 동물로서의 쾌락을 추구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몸에 그려진 꽃과 식물의 줄기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몸을 재형상화하는 과정중에 있었고 그러한 영혜의 몸은 더 이상 인간의 육체가 아니다. 자연과의 완전한 합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 다시 말해 자연이 되고자 하는 주체의 노력은 몸의 재형상화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은 영혜가 나무가 되기 전 단계에 해당한다. 남편과의 섹스는 거절하면서 형부와의 섹스는 적극적으로 행하는 영혜의 모습을 통해 자아의 주인으로서 욕망을 표출하는 여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근대 사회에서 여성의 성은 소비의 대상, 정복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수동적일 수밖에 없던 여성이 자신의 욕구를 분출하고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가부장적 한계를 노출시키는 것과 동시에 억압에 대한 저항의 몸짓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계를 넘고자 하는 영혜의 소망은 그리 쉽게 실현되지 않는다.

IV. ‘식물-되기’ : 새로운 세계를 향한 자아의 변형

1. 새로운 원리를 향한 희망의 몸짓 - ‘나무불꽃’

에코페미니즘이 지향하는 가치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영혜도 당신도 치료가 필요하잖아요.”라는 언니의 말을 통해 에코페미니즘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참여를 필요로 하는 일인가를 알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경계를 넘어 영성을 실현하고자 했던 영혜의 소망은 경계를 넘지 못한 자들의 외면과 질서 속에서 또 다른 대안을 향해 나아간다. 타자성의 상황은 여성이 한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지배문화(가부장제)가 그 주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하고자 하는 규범, 가치, 실행들을 비판할 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타자성은 억압, 열등감과 관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억압당한 열등한 상황 이상의 것이다. 오히려 타자성은 관대함, 다원성, 다양성, 그리고 차이를 허용하는 존재방식, 사고방식, 표현방식이다.⁴⁹⁾ 영혜는 육식이라는 지배문화의 가치를 강요당하면서도 ‘채식’의 가치를 실현해간다. 이는 육식문화를 주도해나가는 남성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육식문화 속에 존재하며 그들의 가치에 동화되어버린 다른 여성들-영혜의 어머니나 언니-에 대한 비판까지 포함한다. 영혜가 이제 ‘식물-먹기’를 넘어 ‘식물-되기’를 통해 경계를 지우는 일을 실현하고자 한다. 영혜의 채식이 남성과 여성, 자연과 문명의 경계를 넘고자 하는 시도였다면 나무가 되고자 하는 영혜의 소망은 그 경계 자체를 허물고 자연과의 완전한 합일을 이루고자 함이다.

채식을 하는 것이 근대 이후 형성된 남성중심 지배질서의 선을 넘고자 하는 행위라면 식물이 되는 행위는 경계 자체를 허물고자 함이다. 이것은 단순히 세계에 대한 자아의 모습이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의 문제를 넘어 주체의 자아실현과 밀접

49) 로즈마리 푸트남 통, 『페미니즘 사상』, 한신문화사, 1995, p345.

한 관련을 맺는다. 그리고 영혜가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자연의 존재를 인지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응 …… 여기엔 큰 나무들이 있네. (「나무불꽃」 p. 174)

……여기서도 나무들이 보이네. (「나무불꽃」 p. 175)

언니, ……세상의 나무들은 모두 형제 같아. (「나무불꽃」 p. 175)

나무를 향한 그녀의 시선은 그녀가 식물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실현하게 되는 시발점이다. 채식이라는 가치는 세계에 저항하는 그녀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지만 세계는 그녀를 더욱 더 고립시킨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현대 문명은 다른 행동을 하는 그녀에게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그녀는 가부장적 폭력의 피해자로서 더 이상은 현대 문명 속에 존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에 그녀는 자연으로의 회귀를 넘어 자신이 곧 자연이 됨으로서 여성해방, 자연해방을 넘어선 인간의 해방을 꿈꾸게 된다. 에코페미니즘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을 이원화시켜 분류하는 작업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다. 그리고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분류에서 벗어났다면 이제는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성=자연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자연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이 자연과 동일하다는 주장은 여성적 본성론을 받아들이게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특성으로 일컬어지는 자연성, 생산성, 포용력, 협력은 여성에게 본질적으로 내재된 특성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규정되고 획득된 이미지이다. 이렇게 남성 중심적 세계로부터 규정된 여성의 특성에서 벗어나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 행동이 바로 ‘식물-되기’이다.

꿈에 말이야, 내가 물구나무서 있었는데…… 내 몸에서 잎사귀가 자라고, 내 손에서 뿌리가 돌아서…… 땅속으로 파고들었어. 끝없이, 끝없이…… 사타구니에서 꽃이 피어나려고 해서 다리를 벌렸는데, 활짝 벌렸는데…… (「나무불꽃」 p. 180)

나, 몸에 물을 맞아야 하는데. 언니, 나 이런 음식 필요없어. 물이 필요한데. (「나무불꽃」 p. 180)

나는 이제 동물이 아니야 언니. (……) 밥 같은 거 안 먹어도 돼. 살 수 있어. 햇빛만 있으면. (「나무불꽃」 p. 186)

영혜는 채식으로 실현되는 자신의 노력이 가부장제라는 거대한 가치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을 엿본다. 그리고 그 희망을 나무-되기로 실현한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어떤 음식도 필요하지 않다. 나무에게 필요한 햇빛과 물만 있으면 된다. 나무가 된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고 환한 미소가 얼굴에 번진다. 나무가 되기를 소원하던 영혜는 마침내 땅 속으로 흡수되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땅이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땅은 자연과 사회의 삶의 재생을 위한 조건이다. 그것은 생물적 삶뿐만 아니라 문화적·영적 삶의 재생산을 위한 자궁이다.⁵⁰⁾ 나무가 크기 위한 자양분은 햇빛, 물, 바람 등의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흙, 다시 말해 땅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나무가 뿌리박고 있는 흙에 따라 나무의 성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도 같다. 사회를 구성하는 가치가 어떠한가에 따라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주체적으로 자아를 인식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여성들에게는 자신, 특히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남성들에 의해 점령된 영토로서 여성의 신체는 타인의 소유로 취급되었다.⁵¹⁾ 그동안 여성은 주체로서가 아닌 누군가의 소유물로서 존재했던 것이다. 영혜가 나무가 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남성의 소유도 아님을 공표함과 동시에 자신의 자아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자기 결정권의 획득의 순간이다.

여성들에게 있어 자기 결정권의 획득은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에 관계없이 기존의 가치체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가부장제 사회속에서 억압

50)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에코페미니즘』, 창작과 비평사, 2006, pp 134~135.

51) 마리아 미스, 「자기결정:유토피아의 종말」,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지음, 손덕수·이난아 옮김, 『에코페미니즘』, 창작과 비평사, 2000, pp 271~2.

받는 여성의 해방을 위해,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는 자연에 대한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녀는 자연이라는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계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자신의 신체를 통해 실현한 것이다.

이렇게 죽으려는 거니? 그런 건 아니잖아. 그냥 나무가 되고 싶은 거라면, 먹어야지. 살아야지.

말하다 말고 그녀는 숨을 멈춘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의심이 고개를 쳐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닐까. 처음부터 영혜는 바로 그것, 죽음을 원해온 거 아닐까. (「나무불꽃」 p. 189)

석달을 굶으면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일까. 머리까지 작아져 성인의 얼굴이라고 볼 수 없을만큼 영혜의 얼굴은 조그맣다. (「나무불꽃」 p. 188)

영혜의 얼굴은 몹시 말랐고, 빗지 않은 머리카락이 거친 헤초다발처럼 헝클어져 있었다. (「나무불꽃」 p. 186)

얼굴과 목과 어깨, 팔과 다리에 조금도 살이 남아 있지 않은, 흡사 재해지역의 기아난민 같은 모습이다. 뺨이며 팔뚝에 긴 솜털이 자라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마치 아기들의 몸에 자라는 것 같은 솜털이다. 오랜 굶주림으로 호르몬의 균형이 깨진 탓이라고 의사는 설명했다. 영혜는 다시 어린아이가 되려는 걸까. 생리는 멎은 지 오래고, 몸무게가 삼십 킬로그램도 안되니 가슴이 남아 있을 리 없다. (「나무불꽃」 p. 183)

……미친 거니, 너 정말 미친거야.

지난 수년 동안 자신이 결코 믿을 수 없었던 그 질문을, 그녀는 처음으로 영혜에게 던진다.

……네가 정말 미친 거니. (「나무불꽃」 p. 203)

그러나 나무가 된 영혜를 바라보는 타자의 시선은 다르다. 세상의 눈에 비친 영혜는 음식을 거부하고 자신이 나무라고 생각하며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미친 여자일

뿐이다.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영혜의 노력은 또 다시 거대한 세계의 벽에 부딪히고 만다. 그녀는 변했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주체성을 회복한 영혜를 여전히 타자로 취급하는 언니를 통해 경계를 지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언니의 눈에 영혜는 세계로부터 버림받은 작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영혜의 언니는 가부장적 질서에 적당히 순응하며 살아온 존재로서 주체성을 상실한지 오래다. 그녀에게는 자아를 제대로 인식하고 주체성을 회복할 계기가 없었다. 그러나 영혜의 채식과 식물-되기를 향한 몸짓을 통해 언니 역시 언젠가는 자아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 오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활활 타오르는 도로변의 나무들을, 무수한 짐승들처럼 몸을 일으켜 일렁이는 초록빛의 불꽃들을 쏘아보’는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자기 주체성을 회복하게 될 그 순간까지 끈질기게 지속될 것임을 말해준다.

2. 탈육체화를 통한 주체의 회복 - ‘내 여자의 열매’

한강의 두 번째 작품집 『내 여자의 열매』(2000)는 표제작인 「내 여자의 열매」를 비롯해 「해질녘에 개들은 어떤 기분일까」, 「어느날 그는」, 「붉은 꽃 속에서」 등 총 8편의 단편을 비롯하여 제 25회 한국소설문학상을 받은 중편소설 「아기부처」가 실려있다. 한강의 식물적인 상상력의 발현이 각각의 단편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나아가 에코페미니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특히 내 여자의 열매에서는 에코페미니즘이 지닌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아내의 모습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한강의 소설은 자아와 타자를 구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과 자연의 연속성,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식물, 꽃과 동일시되는 여성의 이미지와 동물과 동일시되는 남성의 대립적 구조 속에서 남성은 끊임없이 여성을 갈망하며, 이 항대립적인 두 세계는 사랑을 통해 결합을 도모한다. 에코페미니즘은 자연과 인간간의 관계의 회복가능성을 자연과 여성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지금까지의 위기 대응 방식으로는 여성 해방도 자연 해

방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미래도 지속불가능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⁵²⁾

「내 여자의 열매」에서 주인공인 여성(아내)은 바닷가 빈촌으로 상징되는 어머니의 세계를 떠나 사랑하는 남자와 도시에 정착하여 살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퇴화되지 않은 자연성은 도시의 인공적인 삶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불화를 일으킨다. 도시의 삶은 폭력적이다. 도시의 삶속에서 어떻게든 자연성을 찾고자 그녀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식물을 키우기도 하지만 한번의 수확도 거두지 못한 채 식물들은 죽어간다. 죽어가는 식물들처럼 아내역시 서서히 시들어간다. 그녀는 끊임없이 남편에게 도시의 삶을 벗어나고자 대화를 시도하지만 결국 대화는 단절된다.

“깊은 밤과 새벽이면 한산한 도로를 과속으로 질주하는 택시며 오토바이들의 굉음에 아내는 깜짝깜짝 깨어 몸을 떨곤 했”지만 남편은 “일부러라도 나는 변화가가 가까운 곳에서만 자취방을 얻곤 했어. 인파가 득시글거리고, 시끄러운 음악이 거리를 팡팡 울리고, 혼잡하게 도로를 메운 차들이 경적을 뿜어대는 곳으로만 옮겨다녔어.”라며 도시의 삶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녀와의 소통을 거부한다. 그에게 있어 도시의 삶은 가장 따뜻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인공의 냄새가 가득한 도시야말로 남성들의 자연 지배의 역사 그 자체인 것이다.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대화의 주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대화가 단절된 아내는 소통의 부재속에서 점점 타자화되어간다. 남편은 도시적 삶의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를 더는 참을 수 없다. 아내의 말은 이미 말이 아니다. 그것은 의미없는 음성의 기호일 뿐이며, 남편의 말 역시 더 이상 말이 아니다.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은 그의 말은 싸구려 과자 부스러기처럼 거실바닥에 흩어”진다. 타자와 관계를 맺고 상호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이다. 남성의 육체에 의해 여성의 육체가 훼손당하는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라도 남편의 무관심과 남편과의 대화의 단절은 충분히 아내에게 폭력적인 현실이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히 남성에 대한 억압의 상징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에 대한 암묵적인 비판이다. 점점 커져가는 멍과 마침내 식물이 되어버리는 아내의 육체는 남성 중심의 지배질서 속에서 자행되는 억압과 착취에 저항하는 공간

52) 김임미, 「에코페미니즘의 논리와 문학적 상상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3.

그 자체이다.

“내가 요즘 왜 이럴까. 자꾸만 밖으로 나가고 싶고, 밖에만 나가면…… 햇빛만 보면 옷을 벗고 싶어져. 뭐랄까, 마치 몸이 옷을 벗기를 원하는 것 같아.”/

“그저께는 발가벗고 베란다로 나가서 빨래건조대 옆에 서 있어보기도 했어. 창피한 줄도 모르고…… 누가 볼지 모르는데…… 영락없이 미친 여자처럼 말이야.”/

“배도 고프지 않아. 물은 예전보다 많이 마시는데…… 하루에 밥은 반공기도 못먹어.” (「내 여자의 열매」 pp. 220~221)

점점 나무로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아내의 모습은 『채식주의자』의 영혜와 닮아 있다. 영혜가 나무가 되기 위해 음식을 거부하고 오로지 물만을 원했던 것처럼 그녀 역시 더 이상 배가 고프지도 않고 필요한 것은 물뿐이다. 그러나 아내가 처음부터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욕망을 자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미친 여자처럼 느껴질 뿐이다. 도시적 삶에 길들여진 자아가 자신의 주체성을 인식하고 깨달아 실천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남성중심의 권력체제 속에서 아내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 종속되어 있는데 식물이 된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일탈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는 이러한 일탈을 쉽게 수용하지 않는다. 지배가치질서에 반하는 일탈 행위들이 늘어날수록 체제가 위협받기 때문이다. 기존의 남성중심적 사회속에서 타자로 취급받아온 여자는 가부장제라는 상징질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체계의 불완전성 혹은 결핍을 경험하고 전체성의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체이다. 라캉이 말하는 성차는 완벽한 대타자(the Other)에 대한 환상을 갖는지 아니면 완벽한 대타자란 존재하지 않음을 경험하고 그런 대타자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는지의 문제이다. 여기서 완벽한 대타자가 언어나 법 같은 상징질서 혹은 상징적 체계를 의미한다면, 이러한 타자로서의 상징계를 교란시키는 것이 바로 ‘순수한 욕망’, ‘충동’ 혹은 ‘주이상스’이다. 라캉이 의미하는 ‘여자’는 이 충동 혹은 주이상스를 보여주는 위치에 있다.⁵³⁾ 즉 라캉적 의미의 ‘여자는 보편적인 법이나 사회적 체계로 대표되는 상징계의 결핍을 보여줄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환상을 가로지를 수

53) 여성문화이론 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팀,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도서출판 여이연, 2003, p 180.

있는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⁵⁴⁾ 아내는 이러한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식물이 된 것이다. 우리 내부의 타자성을 인식하는 순간은 결국 ‘남자’의 환상을 가로지르고 완벽한 체계로 여겨졌던 대타자로부터 ‘분리’됨을 뜻한다. 라깡에 따르면 대타자로부터 분리되는 이 지점이 분석의 상황에서는 분석을 마치는 순간이며 주체가 환상을 가로지른 후 비로소 자신의 순수한 욕망과 충동을 만나게 되는 지점이다.

아내는 베란다의 쇠창살을 향하여 무릎을 꿇은 채 두 팔을 만세 부르듯 치켜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진초록색이었다. 푸르스름하던 얼굴은 상록활엽수의 잎처럼 반들반들했다. 시래기 같던 머리카락에는 싱그러운 들풀 줄기의 윤기가 흘렀다.

초록빛 얼굴 속에서 두 눈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뒷걸음질치는 나를 향하여 아내는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일어날 수도 걸을 수도 없다는 듯이 다리계를 움짚 경련했을 뿐이었다. 아내는 고통스러운 몸짓으로 낭창낭창한 허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새파란 입술 속에서 퇴화된 혀가 수초처럼 흔들렸다. 이빨은 이미 흔적도 남아 있지 않았다.

……물.

아내의 희끗한 입술이 오므라들며 신음에 가까운 외마디가 새어 나왔다. 나는 홀린 듯이 싱크대로 달려갔다. 플라스틱 대야에 넘치도록 물을 받았다. 내 젼 걸음에 맞추어 흔들리는 물을 왈각왈각 거실바닥에 쏟으며 베란다로 돌아왔다. 그것을 아내의 가슴에 끼얹은 순간, 그녀의 몸이 거대한 식물의 잎사귀처럼 파들거리며 살아났다.

(「내 여자의 열매」 pp. 233~234)

아내가 식물이 되는 순간이 바로 대타자인 남편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이며 억압과 소외를 넘어서는 실천적 움직임의 순간이다. 그녀의 이러한 나무로의 변형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상대를 해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동물의 세계와 반대로 지극히 식물적인 세계로의 지향이다. 이 식물의 세계는 남성적 폭력을 해결할 부드럽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채식주의자』의 영혜와 「내 여자의 열매」의 아내는 적극적이지만 평화롭고 가시적이지만 유연한 방법으로 남성주체에 의해 지배당하는 근대문명에 저항하였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며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저

54) 위의 책, p181.

항하면서도 남을 해치지 않는 영혜의 삶과 남편의 무관심에 저항하면서도 남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혼자서 점점 식물로 변해가는 아내의 삶이 바로 그것이다. 육체의 식물화는 바로 이러한 저항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그녀는 나무가 되어 가며 하루에 몇 번씩 토약질을 해대면서도 고통과 상처를 오롯이 혼자 몸으로 견디며 도시의 삶에 찌든 동물의 몸을 벗어 식물이 된다. 현대 사회의 여성의 몸은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신체를 통해 노동을 수행해왔다. 여성의 가슴이나 자궁을 통한 생산과 양육이 여성이 수행해온 노동인데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이러한 여성의 노동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왔다. 근대 사회에서 부정되고 축소된 여성의 신체를 단지 종의 승계만을 위한 출산의 도구로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가치와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통로로써 여성의 몸을 인식해야 한다. 여성의 평화롭고 순종적인 육체는 남성의 일방적인 지배에서 벗어나 스스로 대안을 창출해내는 적극적 공간인 것이다. 케롤린 머천트는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는 생명유지와 보살핌의 윤리가 필수적이며 여성과 남성, 자연과 남성 등의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자가 된 여성은 주체성의 회복을 도모한다.

갓난아이의 손바닥만한 연푸른 피멍들이 마치 날염(捺染)한 듯 또렷이 얹혀 있었다.
(「내 여자의 열매」 p. 217)

지난 봄만 해도 갓난아이 손바닥만했던 피멍들이 이제 큼직한 토란잎처럼 부풀어 있었다. 게다가 멍의 색깔이 그때보다 진해졌다. 봄날의 연푸른 실버들 가지가 여름 들면서 짙게 푸르러진 것 같은 둔탁한 녹색이었다. (「내 여자의 열매」 p. 217)----

「몽고반점」에서 영혜의 엉덩이에 있던 몽고반점과 같이 아내의 몸에 든 멍의 발견은 소설을 이끄는 중요한 모티프이다. 아내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주체의 의지는 있지만 그 의지를 실현할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남성에 의해 선택되어지고, 여성은 수동적으로 이에 순응하며 살아간다. 근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권리마

저 박탈당하고 원천봉쇄된 것이다. 이러한 선택권의 상실은 신체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아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신체에 대한 주체적 결정권마저 박탈당하게 된 것이다. 멍은 이렇게 박탈당한 선택권에 대한 일종의 저항의 표식이자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표식이기도 하다. 이 ‘멍’은 단순한 신체적 상처가 아니라 남편의 가부장적 권위에 지배당하는 아내가 가진 내면적 고통의 발현이며, 『채식주의자』의 ‘몽고반점’처럼 육신을 탈피하고 식물이 되고자 하는 일종의 표식과 같은 것이다.

도시의 삶을 답답해하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의 무관심과 대화의 단절 속에서 점점 더 깊어져가는 멍과 소통의 부재 속에서 점점 나무가 되어가는 아내를 통해 이항 대립적이던 남성과 여성, 도시문명과 자연이 평화로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화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의 삶은 수동적이고, 체계적이며 예측가능한 잘 짜여진 삶이다. 그러나 식물의 삶은 변화무쌍하고 능동적이며 도식적이지 않은 자유분방한 삶이다. 도시의 건물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지만 식물은 햇빛, 바람, 물 같은 외부적 요소로 인해 삶이 결정된다. 아내가 식물이 되었다는 것은 도시적 삶에 대한 거부와 동시에 자기 결정권의 획득을 의미한다. 또한 에코페미니즘에서 강조하는 상호교류의 실천적 행동이기도 하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속에서 전통적인 가족제도, 이성애를 붕괴시키는 탈주에의 욕망을 표현하며 탈근대화를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⁵⁵⁾ 나무가 되어가는 그녀들은 행복하다. 영혜의 두 눈은 생생히 번쩍이며 얼굴은 마치 좋은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빛난다. 나는 이제 동물이 아니니 햇빛만 있으면 밥 같은 건 필요없다는 영혜의 고백에서 더 이상은 이 사회의 타자로 억압받지 않겠다는 그녀의 강한 의지를 알 수 있다. 나무가 되어가는 아내는 베란다 화분에 심어진 채 어머니에게 고백한다. 나는 괜찮다고, 오래 전부터 이렇게 바람과 햇빛과 물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꿈꿔왔다고. 에코페미니즘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바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억압·착취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억압·착취를 가능하도록 만든 서구의 사회적, 정치적, 의식적 구조를 고발하고 시정하는

55) 장시기, 『근대와 탈근대의 접경지역들』, 사람생각, 2001, p325.

것이다.⁵⁶⁾가부장적 사회에서 타자화된 그녀들은 또 한 번 스스로를 타자화시키며 식물적 원리를 통한 새로운 세계를 실현시키고 있다.

이런점에서 아내가 식물이 되는 한강의 소설 내 여자의 열매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내가 식물이 된다는 것은 환상의 기표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나무가 되었다고 믿는 영혜와 그런 영혜를 여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보는 주변부의 시각이 제시된 나무불꽃과는 달리 내여자의 열매에서는 주변부인 남편의 눈에도 아내의 모습이 식물로 보인다. 영혜는 나무가 되는 환상속에 있지만 아내는 식물이 되었다. 이러한 주체의 자아 변형은 주체 뿐만 아니라 주체를 둘러싼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타자화된 여성을 둘러싼 가장 가까운 세계는 다름아닌 남성이다. 남성에게 있어 여성적 원리의 회복은 삶을 축소하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강화하는 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실천 및 활동의 재배치를 의미한다.⁵⁷⁾ 자연적 원리를 깨닫는 남성의 모습은 「내 여자의 열매」에서 식물이 된 아내를 통해 아름다움을 느끼고 아내를 정성스럽게 보살피는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강의 소설 속에 나오는 남성주체들은 가부장적 폭력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으로 휘두르고 있지만 본래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던 자연성을 깨닫는다. 이것은 남성이 미래사회에서 여성에 의해 타자화되고 소외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성과 함께 인류의 새로운 대안적 비전을 제시할 주체임을 말한다. 남자는 타자의 욕망으로 나타나는 결여 혹은 공백을 상상적으로 메움으로써 완벽한 체계를 만들어내려는 환상의 구조를 보인다. 반면에 여자는 타자의 결핍을 가리는 남자와 달리 끝까지 욕망을 주장함으로써 타자의 결여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가 가리려했던 체계의 결핍을 드러냄으로써 환상을 걷어내려는 구조를 보여준다.⁵⁸⁾ 가부장제로 인한 자연과 파괴, 생태계 오염 등과 같은 근대 사회의 문제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남성들은 자연과 여성을 억압해왔다. 자연과 여성이 본래의 가치를 박탈당해 오는 동안 그들은 주체성이 상실된 타자의 위치에 있게 되었

56) 신두호, 「남성과 에코페미니즘」, 『생태문화 페미니즘』 제9권 1호, 2001.

57) 반다나 시바, 『살아남기: 여성, 생태학, 개발』, 솔출판사, 1998, p106

58) 여성문화이론 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팀,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도서출판 여이연, 2003, p182.

다. 이러한 자연과괴, 여성과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성이 필요하다. 여기서 여성적 원리란 여성만이 지닌 모성, 보살핌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생명력, 포용성, 다양성, 순환성을 의미하며 자연과 여성을 동일시하던 기존의 공식을 넘어 자연과 인간을 동일시하며 남성을 자연과 여성에 대항하여 이원적으로 분류하던 기존의 가치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어 상호협력할 미래지향적 존재로 인식한다. 에코페미니즘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모든 생명체의 상호의존성, 상호교류성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배질서의 구축에 있기 때문이다. 남성을 타자화시키는 구조가 아닌 남성과 하나가 되어 가부장제의 환상을 극복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은 기존의 이원론과 거짓된 이분법을 극복할 것을 강조하고 모든 생명체의 상호의존성을 새로운 윤리와 정치의 중심에 두고자 하므로, 만일 생명의 창조와 지속에 대한 책임의 네트워크에서 남성을 제외한다면 이는 모순이 될 것이다.⁵⁹⁾

그이는 무척 친절해졌답니다. (……) 내가 수돗물을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그렇게 피곤해만 하던 사람이 아침마다 물통 가득 뒷산 약수를 길어와서 내 다리에 부어준답니다. 얼마 전에는 기름진 새 흙을 한아름 사와서 갈아 주었어요. 비가 내린 다음날, 오랜만에 도시의 공기가 깨끗해진 새벽녘이면 창문과 현관문을 활짝 열어 공기를 바꾸어준답니다. (「내 여자의 열매」 p. 235)

한 때 아내의 손과 머리카락이었던 잎사귀들이 남김없이 떨어져내리고, 입이 오그라붙었던 자리가 벌어지면서 한움큼의 열매가 쏟아져나왔을 때 그 실낱 같은 느낌은 끊어졌다. 석류알처럼 한꺼번에 쏟아져나온 자잘한 열매들을 한손에 받아두고 베란다와 거실을 연결하는 새시 문턱에 걸터앉았다. 처음 보는 그 열매들은 연두색이었다. (……) 다음날 나는 여남은 개의 조그맣고 동그란 화분을 사서 기름진 흙을 가득 채운 뒤 열매들을 심었다. (「내 여자의 열매」 pp. 241~242)

「내 여자의 열매」에서 남편은 식물이 된 아내에게서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이것

59)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에코페미니즘』, 창작과 비평사, 2006, p393

은 남성이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식물적 원리를 깨닫는다는 의미이다. 실제적 자아의 변형은 남편에게 깨달음을 준다. 여성과 남성이 아닌 인간으로서 자아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내를 위해 물을 주고 흙을 갈아주는 그의 행동을 통해 이미 그가 동물의 세계를 버리고 식물의 세계로 한 발 디뎠음을 알 수 있다. 가부장제 사회의 거대한 남성의 몸은 차이를 배제하고 계급의 서열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여성의 몸은 자신의 몸 안에서 타자에게 생명과 성장을 허용한다.⁶⁰⁾ 불임인 아내는 식물이 됨으로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되고 나아가 열매맺기를 통해 남편에게는 화해의 움직임의 제시한다. 이렇게 아내에게서 깨달은 자연의 원리야말로 현 남성중심적 사회체제에 대한 대안사회를 이끌 주체로서의 여성의 존재에 대한 각성이라 할 수 있다. 여성적 원리의 회복은 단지 여성들뿐만 아니라 자연과 비서구적 문화에 가해지는 복합적인 지배와 박탈에 대한 대응이다. 이는 생태계의 회복 및 자연의 해방, 여성들의 해방, 그리고 자연과 여성들을 지배함으로써 자신의 인간다움을 희생시켜버린 남성들의 해방을 의미한다.⁶¹⁾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내가 남긴 열매를 화분에 심는 행위는 남성이 여성, 자연과 조화하고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실마리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대립적인 남성/여성, 이성/감성, 도시/자연의 위계적인 구조를 해체시키고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여 자연해방, 모든 인간의 해방을 가져오는 새로운 원리의 생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원리는 여성을 통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지 여성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이 중심이 되어 남성중심의 원리를 허물고 여성지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식물적 원리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구현해내고자 하는 것이다. 남녀 모두를 자신의 본성으로 돌려놓고 조화로운 세상을 구축할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60) 한국영미문학 페미니즘 학회, 『페미니즘-어제와 오늘』, 민음사, 2001, pp184~185.

61) 반다나 시바, 『살아남기: 여성, 생태학, 개발』, 솔출판사, 1998, pp105~106.

V. 결론

지금까지 한강의 소설을 에코페미니즘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한강은 2005년 이상문학상, 2010년 동리목월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현대문학계의 소설을 이끌어 나갈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그녀의 작품집 『채식주의자』는 2005년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몽고반점」과 연작소설인 「채식주의자」, 「나무불꽃」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부장제 질서속에서 육식으로 대변되는 남성들의 폭력에 저항하는 주인공 영혜를 통해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의 지배원리는 자연으로의 회귀라고 말하고 있다. 작가는 소설을 통해 육식 공동체의 폭력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으며 타자화된 여성이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세계에 저항하고, 에코페미니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녀는 『내 여자의 열매』를 통해 육식이나 도시화 등의 남성적 지배질서의 문제점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의 폭력을 극복할 수 있는 여성적 원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고는 에코페미니즘의 개념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통해 한강의 소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문학에서 에코페미니즘이 발현된 한강의 소설을 구체적으로 조명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에코페미니즘이 현대 사회의 중요한 담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고찰하고 있다. 먼저 에코페미니즘이 기존의 페미니즘에서 나아가 여성과 자연의 본질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여성과 자연에의 억압과 학대, 소외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돌봄과 영성의 원리를 통해 새로운 원리를 제시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페미니즘은 자연과 여성을 동일시하여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에코페미니즘은 이러한 이분법적 시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별의 차이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들의 원인을 밝히고, 남성과 여성의 화해, 자연에의 회귀를 통한 새로운 지배원리의 발견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본고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통해 남성의 여성지배 원리를 밝히고 있으며 여성과 자연을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또한 에코페미니즘과 채

식과의 관련성을 통해 채식이야말로 현대 사회의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억압당하고 부정되어 온 동물, 여성, 자연의 지위와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원리임을 밝힌다.

채식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동물의 가치를 존중해야 하며 윤리적 관점에서 동물해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간의 육식에의 욕망이 동물들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육하고 도축하게 했으며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이 이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본다. 육식에 남성들의 여성지배원리가 투영되어 있으며 이를 거부하게 될 경우 여성은 육식 공동체의 타자로서 소외되고 핍박받게 된다. 이때의 여성을 자연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해 환경오염과 같은 자연파괴현상이 수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은 에코페미니즘에서 말하는 돌봄과 영성의 원리를 통해 개선되고 극복되어질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자연과 여성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돌봄의 속성이야말로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새로운 원리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원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결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코페미니즘에서 채식은 육식으로 대변되는 가부장적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정치적 양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원리에 대한 저항이자 반발로 보여질 수 있다. 채식 혹은 채식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기존의 가치에 대한 거부이자 세계를 움직일 새로운 원리의 제안이라 할 수 있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자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인식은 한강 소설에서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한다. 육식으로 대변되는 아버지, 남편등의 남성들이 채식주의자가 된 영혜를 타자화시키고 고립시키는 과정을 통해 현대 사회가 여성과 자연에게 가해온 폭력을 비판하고 문제화시키고 있다. 채식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식습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배 질서에 대한 저항이자,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하는 정치적인 움직임이다. 또한 이것은 여성해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성, 자연, 동물 등 현대사회가 타자화시킨 모든 대상들의 해방운동이기도 하다.

한강은 이러한 해방운동을 영혜의 채식이라는 과정을 통해 여실하게 드러낸다. 영혜는 비폭력적이고 인도적인 방법을 통해 세계에 저항하지만 육식공동체는 폭력적

이고 잔인한 방법을 통해 영혜를 억압하고 고립시킨다. 육식을 거부하는 영혜를 정신병자로 치부하는 그들로 인해 영혜는 세계와 화해하려는 마지막 움직임의 기회마저 차단당하고 박탈당한다. 그러나 영혜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를 자연으로 회귀시킴으로써 여성적 질서와 원리를 실현시키고자 한다.

자기 결정권을 획득했지만 끝내 경계를 허물지 못한 영혜와는 달리 『내 여자의 열매』에서는 자연 속의 생명이 협력과 상호보살핌, 사랑 등의 영성의 원리를 실현하게 되는 가능성이 충분히 암시되고 있다. 근대 사회로의 이행은 육식과 도시화 등의 새로운 지배질서를 확고히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연과 여성은 억압당하고 폭력에 노출된 채 어디에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퇴락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본고에서 『내 여자의 열매』를 통해 살펴본 여성에게 가해지는 남성의 폭력적인 모습과 도시적 삶의 지양은 남성과 여성, 도시와 자연, 지배와 피지배로 이원화되는 현실 속에서 주인공들이 겪는 현실 인식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작품 속에서 도시는 남성들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남성들은 도시의 공간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적으로 생활한다. 이에 반해 여성들은 꽃과 나무로 대변되는 자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도시의 삶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자연으로의 회귀를 꿈꾼다. 이러한 여성들을 향한 남성들의 폭력은 다양한 양상으로 발현되어 여성을 억압한다. 그러나 소설 속의 남성들은 여성을 억압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존재로 묘사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재된 자연성, 식물성을 깨닫는 존재이다. 한강은 페미니즘의 이원화된 분류에 따라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내재된 자연의 본성을 깨닫고 그것을 회복하여 여성과 함께 미래 사회의 새로운 원리를 실현시킬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평화롭고 편안한 여성적 세계의 경험을 잊지 못하고 여성적 원리의 회복을 향해 끊임없이 길을 떠나고, 식물이 된 여성을 돌보며 내재된 식물성을 발현시킨다. 이러한 남성들의 행동을 통해 그들을 대립적인 존재로 규정하지 않고 여성과 남성을 협력적인 존재로 상정하였다. 또한 소설속의 여성이 자아를 인식하고 주체성을 깨닫는 ‘식물-되기’의 과정을 통해 세계의 화합을 유도하고 있으며 근대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여성억압, 동물학대, 자연파괴 등의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화합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적 원리를 회복하는 것은

곧 남성의 해방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 자연이 모두 하나되는 화합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에코페미니즘은 여성을 지배하는 남성과 자연을 지배하는 인간의 억압체제를 연결하여 보여주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한강의 작품을 통해 남녀를 성으로 분류하여 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남녀를 같은 인간으로 통합하여 자연에의 새로운 원리를 발견하고 이를 함께 실현시킬 중요한 존재로 파악하였다. 여성은 자연과 동일하다는 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과 남성 모두 자연과 동일하다는 입장에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강의 소설은 에코페미니즘의 한계를 넘어서 여성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배이념이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해가기 위해 주체성을 회복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통해 변화하는 남성과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에코페미니즘적 관점에서의 문학작품 분석은 단순히 이론적인 논의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다양한 사회, 문화적 분야와 에코페미니즘을 연결지어 하나의 거대한 담론으로서 현대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강의 소설은 문학작품을 통해 새로운 세계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핵심으로서 의의가 크다. 또한 한강의 소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에코페미니즘적 관점을 통한 새로운 원리의 제안과 실천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한강은 소설을 통해 폭력과 억압의 공동체를 화합하고 상처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삶의 질서를 구현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겨울에는 견뎠고 봄에는 기쁘다”는 한강의 메시지는 남성과 여성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화해하고 하나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참 고 문 헌

기본자료

한강, 『내 여자의 열매』, 창작과 비평사, 2000.

한강, 『채식주의자』, 창작과 비평사, 2007.

단행본

구승희, 「생태윤리학: 인간윤리학에서 자연윤리학으로」, 『에코필로소피』, 새길, 1995.

로즈마리 퍼트남 통, 『페미니즘 사상』, 한신문화사, 1995.

마리아 미스, 반다나 시바, 『에코페미니즘』, 창작과 비평사, 2002.

M. 호르크 하이머/Th.W아도르노 지음, 김유동·주경식·이상훈 옮김, 『계몽의 변증법』, 문예출판사, 1995.

문순홍, 『생태학의 담론』, 생명총서, 1999.

반다나 시바, 『살아남기: 여성, 생태학, 개발』, 솔출판사, 1998.

배리 쏘온·매틸린 알롬 엮음,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권오주·김선영·노영주·이승미·이진숙 옮김, 도서출판 한울, 1991.

심영희, 정진성, 윤정로 공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나남신서, 1999.

S, Žižek 『삐딱하게 보기』, 김소연·유재희 옮김, 시각과 언어, 1995.

여성문화이론 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팀,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도서출판 여이연, 2003.

이수자, 『후기 근대의 페미니즘 담론』, 도서출판 여이연, 2004.

장시기, 『근대와 탈근대의 접경지역들』, 사람생각, 2001.

- J.R. 데자르땡, 『환경윤리』, 김명석 옮김, 자작나무, 1999.
- J. Rifkin, 『육식의 종말』, 신현승 옮김, 시공사, 2002.
- 조혜정, 『탈식민지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1)』, 또하나의 문화, 1992.
- 캐롤 길리건, 『다른 목소리로』, 허란주 옮김, 동녘, 1997.
- 캐럴 J. 아담스, 『육식의 성정치』, 이현 옮김, 미토, 2006.
- 캐럴 J. 아담스, 『프랑켄슈타인은 고기를 먹지 않았다』, 류현 옮김, 미토, 2003.
- 콜버그·레빈·휴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문용린 옮김, 대우학술총서, 2000.
- P. Singer, 『동물해방』, 김성한 옮김, 인간사랑, 1999.
- 한국영미문학 페미니즘 학회, 『페미니즘-어제와 오늘』, 민음사, 2001.

논문

- 강혜경, 「여성주의 윤리 시각에서 본 여성의 모성」, 여성학논집 제 125집 2호, 2008.
- 구자희, 「한국 현대 소설에 나타나는 에코페미니즘」, 『현대소설연구』 제29호, 한국현대소설학회2006.
- 구자희, 「한국 현대 도시 소설에 반영된 생태의식」, 『현대소설연구』 제36호. 한국현대소설학회2007.
- 김미란, 「조세희 소설의 모성성 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9.
- 김옥동, 「에코페미니즘의 철학적 기초」,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1997.
- 김임미, 「에코페미니즘의 논리와 문학적 상상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3.
- 문순홍, 「에코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여성과 사회』, 창작과비평사, 1995.
- 문순홍, 『생태여성론의 이론적 분화과정과 한국사회에의 적용』, 한국여성연구회 편, 『여성과 사회』, 창작과 비평사, 1996.
- 박미선, 「공선옥 소설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9. 사라 밀즈 외, 「페미니즘 용어 사전」, 『현대시사상』, 1991.

- 신두호, 「남성과 에코페미니즘」, 『생태문학 페미니즘』 제9권 1호, 2001.
- 신수정, 「한강 소설에 나타나는 ‘채식’의 의미」, 『문학과 환경』, 2010.
- 이귀우, 「생태담론과 에코페미니즘」, 새한영어영문학회.
- 이정은, 「현대 여성주의 철학에서 보살핌 윤리- 실천적 판단에서 특수 윤리와 보편 윤리의 전환 가능성」, 『한국여성철학』 제11권, 2009.
- 이찬규·이은지, 「한강의 작품 속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연구-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46호,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 정연희, 「한창훈 소설에 나타나는 에코페미니즘의 특성 연구」, 『국제어문』 제48호, 국제어문학회, 2010.
- 최지명, 「타자들의 에코토피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연구」,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2010.
- 한귀은, 「외상의 (탈)역전이 서사-한강의《채식주의자》연작에 관하여」, 『배달말』, 2008.